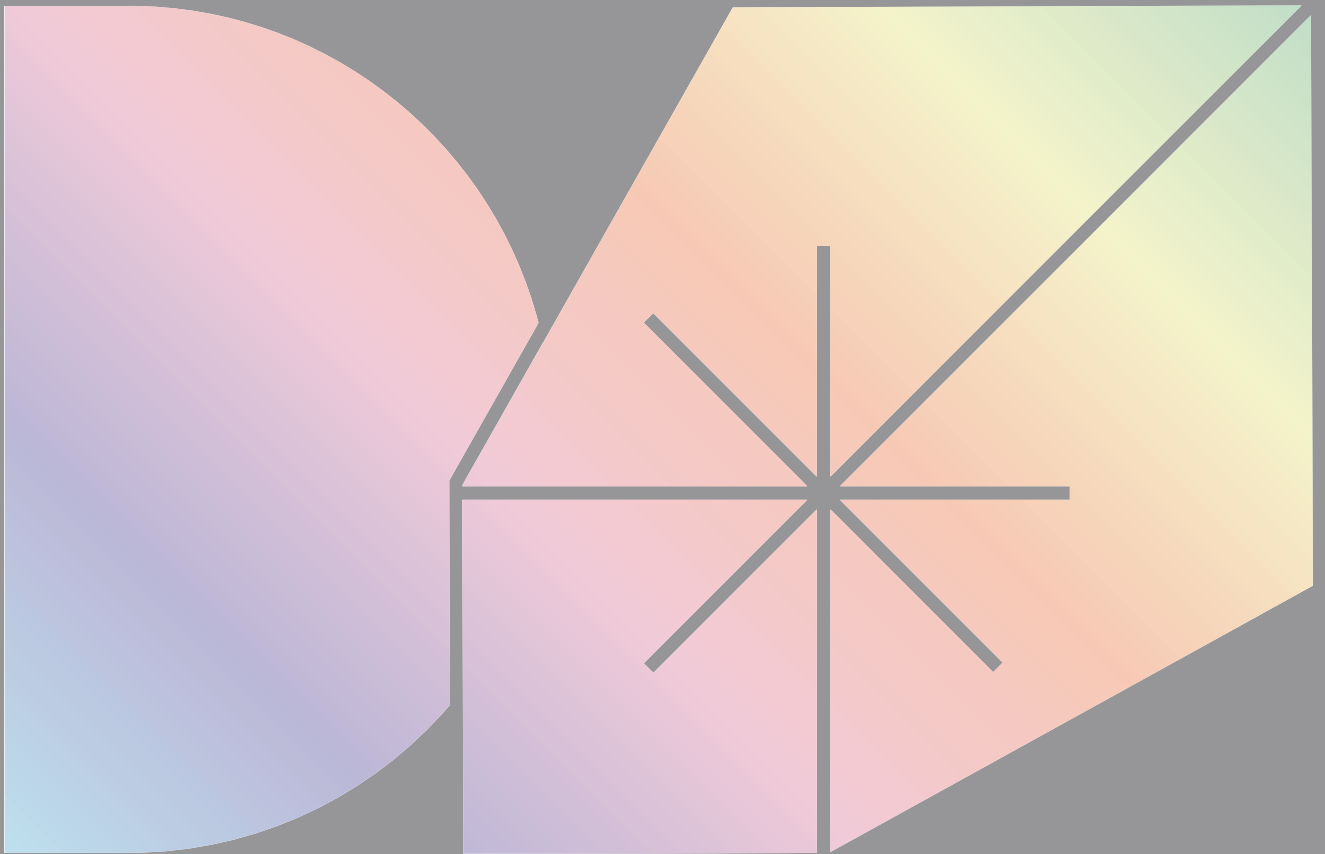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애뉴얼리포트 2023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애뉴얼리포트 2023

목차

발간사		4
한눈에 보는 미디어센터		6
<hr/>		
교육	OVERVIEW	10
	2023 교육과정 주요특징 및 성과	14
	주요강좌 톨아보기	
	영화이론의 기초개념들	16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워크숍	18
	동시녹음워크숍	20
	픽사의 스토리텔링 방식	21
	독립출판워크숍	22
	시니어 초단편영화제작과정	24
	수륜중학교 미디어캠프	26
	고전영화읽기	27
	대구영화학교	28
	배리어프리영화 제작과정	34
<hr/>		
지원	창작지원	
	창작지원제도 낱낱	40
	대구 다양성영화 지원사업	44
	후반작업시설	48
	지역영화 창작공간 운영	50
	대구영화데이터베이스 DMDB	51
	상영지원	
	커뮤니티시네마 활동 지원	52
	커뮤니티시네마 기획단	53
	찾아가는 영화관	55
	커뮤니티 지원	
	미디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	56
<hr/>		
네트워크	대구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문화 정책네트워크	62
	대구시민미디어페스티벌	64
	대구영화학교 홈커밍데이	68
인터뷰		70
활동사진		86

2023년에도 대구영상미디어센터는 활발히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분야별, 수준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였고, 미디어를 매개로 활동하고자 하는 미디어 커뮤니티의 다채로운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의 마을방송국도 어느새 9개소가 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미디어 활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작인력 육성에 따라 영화 창작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화진흥위원회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으로 지역 유일의 색보정(D.I) 시설이 조성되면서 영상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여러 작품이 국내·외 영화제 진출 및 수상 소식을 전해주었으며, 두 편의 지역 장편영화가 개봉하여 전국의 관객들을 만나기도 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 대구영상미디어센터는 2007년 개관 이래 두 번째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이전으로 수성구 대구스타디움몰에 조성되는 ‘대구영상미디어파크’에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1인미디어센터와 나란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가 시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보편적인 미디어 접근성 확대에, 대구1인미디어센터가 1인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면, 대구영상미디어센터는 영화·영상 전문인력 육성, 지역영화 창작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센터별 역할이 조화롭게 추진된다면 지역 영화·미디어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아직은 과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대구영상미디어파크가 조성되었고, 각 센터도 자리 잡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지원사업 폐지 등으로 인해 지역생태계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영화·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이용자분들과 지역민들의 참여와 응원, 각 기관 및 단체의 협력 덕분에 많은 일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센터장
권현준

한눈에 보는 미디어센터 2023

미디어 교육

43회
565명 수강



기술교육 13회, 153명

이론교육 3회, 41명

제작교육 7회, 65명

기획특강 2회, 22명

공동체 4회, 57명

외부협력 14회, 227명

미디어 커뮤니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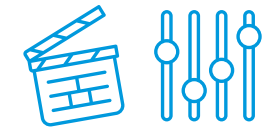


미디어 커뮤니티 활동지원 8개소
(성장형 4개소, 발굴형 4개소)

마을방송국 지원 9개소

미디어동아리 제작지원 1개소

창작지원



장비대여(유상대여) 166건

창작지원제도 '낙낙'(무상지원) 202건

창작공간 지원 7개팀

후반작업시설(2023년 신설) 173건

대구영화 데이터베이스 운영(dmdb.or.kr) 346편, 943명 등록

상영지원



다양성영화 상영지원 프로그램

• 독립영화전용관 1개소 4,191명

• 지역영화제 1개소 2,000명

커뮤니티시네마 활동지원 27회, 580명

커뮤니티시네마 기획단 과정 2기 수료상영회 3회, 49명

찾아가는 영화관 2회, 63명

찾아가는 배리어프리 영화관 4회, 48명

지역 미디어 네트워크



대구시민미디어페스티벌 1회

지역 미디어단체 실무자 회의 5회

지역 미디어활동가 공동학습회 1회

지역 영화문화 포럼 1회

홍보



인스타그램 3,000명

카카오톡 채널 301명

네이버 블로그 1,800명

유튜브 채널 127명

뉴스레터 구독자 600명

자체제작 콘텐츠 4개

애뉴얼리포트 발간 1건

외부(공모)사업

8건

264,510,000원 유치



영화진흥위원회

-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 지역영화인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 한글자막 화면해설 상영사업(배리어프리영화 사업)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 제작지원 사업
-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 상영지원 사업
- SKB미디어창작지원센터 운영 사업

시청자미디어재단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시민제작교실



OVERVIEW

구분	교육명
기술교육	프리미어 시작하기 (상반기)
	사진촬영기초
	동시녹음워크숍
	후반작업시설 연계 강좌 - 다빈치 리졸브 영상색보정 기초
	촬영 조명 워크숍
	프리미어 시작하기 (하반기)
	일러스트레이터 기초과정
	센터 장비활용 기초
	후반작업시설 연계 강좌 - 사운드 디자인
	후반작업시설 연계 강좌 - 영화편집워크플로우
	후반작업시설 연계 강좌 - 다빈치 리졸브 편집 기초
	후반작업시설 연계 강좌 - 다빈치 리졸브 영상색보정 심화
	애프터이펙트 기초과정
	영화이론의 기초개념들
이론교육	다큐멘터리 입문
영화 비평 쓰기	
제작교육	단편시나리오 워크숍 (상반기)
	스마트폰 초단편영화 제작과정
	실험영화 제작워크숍 (이미지워크숍)
	단편영화 제작워크숍
	단편시나리오 워크숍 (하반기)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워크숍
	독립출판 워크숍
기획특강	미디어 기획 특강 - 영화를 통해 바라보는 우주
	미디어 기획 특강 - 픽사의 스토리텔링 방식
공동체	세상을 담는 아이들
	어린이문화다양성 미디어교실
	자조모임 오리걸음
	미디어교육 - 수륜중학교 미디어캠프

강사	기간	차시(시수)	수강인원	수료인원	비고
김도현	3월 13일 ~ 3월 22일	4 (10)	15	11	오프라인
이석주	5월 3일 ~ 5월 31일	5 (10)	12	11	오프라인
최지영, 김태형	5월 6일 ~ 5월 20일	3 (12)	12	12	오프라인
전상진	6월 21일 ~ 7월 12일	4 (10)	16	11	오프라인
노다해, 김홍신	7월 8일 ~ 8월 12일	6 (24)	10	10	오프라인
김도현	7월 18일 ~ 7월 27일	4 (10)	16	16	오프라인
구민호	9월 6일 ~ 9월 15일	4 (12)	8	6	오프라인
이승우	9월 22일	1 (3)	8	7	오프라인
이소현	10월 14일	1 (4)	12	11	온라인
원창재	10월 25일 ~ 10월 27일	3 (9)	13	13	오프라인
전상진	11월 17일 ~ 12월 1일	3 (9)	11	7	오프라인
전상진	11월 18일 ~ 12월 9일	4 (16)	10	7	오프라인
노현태	11월 18일 ~ 12월 9일	8 (20)	10	7	오프라인
조민석	4월 4일 ~ 5월 2일	5 (15)	16	11	온라인
이승민	5월 9일 ~ 7월 11일	8 (24)	12	7	온라인
한창욱	6월 1일 ~ 7월 20일	8 (24)	13	9	온라인
유지영	3월 10일 ~ 5월 5일	8 (24)	10	9	온라인
박찬우, 박재현	5월 4일 ~ 5월 29일	8 (20)	12	10	오프라인
오민욱	5월 6일 ~ 7월 15일	10 (30)	10	5	오프라인
고현석, 박재현	8월 1일 ~ 9월 21일	14 (35)	9	7	오프라인
김현정	9월 5일 ~ 10월 31일	8 (24)	10	9	온라인
오세연	9월 9일 ~ 11월 4일	10 (30)	7	6	오프라인
김인혜, 최성	10월 4일 ~ 11월 16일	7 (21)	7	6	오프라인
김준호	11월 26일	1 (3)	7	7	온라인
조현민	11월 25일	1 (3)	15	12	온라인
이경민, 박지하, 박찬우	6월 10일 ~ 8월 26일	9 (18)	11	9	오프라인
김공연, 서현정, 최원혜	7월 25일 ~ 8월 2일	7 (14)	10	10	오프라인
김현미, 신혜원	7월 28일 ~ 8월 25일	5 (15)	7	6	오프라인
박재현, 박찬우, 김선빈	7월 19일 ~ 7월 21일	3 (15)	29	29	오프라인

구분	교육명
외부 협력교육	중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ICT사업단 어르신 대상 미디어교육
	대구영화학교 - 현장 영화인 활동지원 Gap Year Project
	대구영화학교 - 신규영화전문인력양성과정
	대구영화학교 - 비즈니스클래스
	영화진흥위원회 배리어프리영화 제작과정
	대구영화인 역량UP! 촬영 조명 설계 워크숍
	대구영화인 역량UP! 브레이크다운워크숍
	영화배급 워크숍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커뮤니티시네마 기획단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고전영화 읽기 (현대영화의 오마주가 된 고전작품분석)
	시니어 초단편영화 제작과정
	SKB 창작미디어센터 체크체크 팩트체크
	마을공동체미디어 공동학습회
	대구마을방송국 미디어교육 심화과정

강사	기간	차시(시수)	수강인원	수료인원	비고
김주연, 이경민, 박지하	3월 13일 ~ 3월 27일	3 (9)	18	18	오프라인
-	6월 ~ 11월	1 (3)	17	17	오프라인
최창환, 유지영, 김세훈, 박인호	6월 9일 ~ 1월 30일	50 (200)	12	12	오프라인
장서희, 강소영, 장병원, 김광철, 박재완	8월 11일 ~ 9월 6일	4 (12)	63	63	오프라인
강내영, 이경민, 박지하	8월 17일 ~ 11월 16일	12 (36)	7	6	오프라인
김보라	11월 1일 ~ 11월 23일	8 (32)	10	5	오프라인
강지원	11월 27일 ~ 12월 8일	6 (18)	10	10	오프라인
성송이, 최예지, 성동림	10월 18일 ~ 12월 6일	10 (25)	9	7	오프라인
김현수, 김남훈	9월 5일 ~ 11월 7일	8 (16)	13	13	오프라인
서성희	10월 11일 ~ 11월 15일	6 (12)	10	5	온라인
박지하, 장주선	10월 30일 ~ 11월 15일	6 (12)	13	9	오프라인
이경민	11월 8일 ~ 11월 29일	4 (8)	8	6	오프라인
최현정, 양승렬, 배효순, 허경	6월 29일	1 (2.5)	25	25	오프라인
이경희	11월 2일 ~ 12월 21일	8 (24)	12	12	오프라인

2023 교육과정 주요특징 및 성과



2023년,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지역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온라인 미디어 기획특강

2023년,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통해 수강생들이 매체에 대한 비평적 사고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체크체크 팩트체크’, ‘고전영화 읽기’ 등의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강생이 미디어에 담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기 주도적인 미디어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토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주제의 온라인 미디어 기획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픽사의 스토리텔링 방식’ 특강에서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이야기 구축 기법을 배우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구조와 캐릭터 개발 전략을 학습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바라보는 우주’ 특강에서는 SF영화 속 우주의 재현을 탐구하며, 과학적 상상력이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된 비대면 환경에서 적극적인 토론과 질문이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밀도 있는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강화된 영화 제작 교육

2023년,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영화 제작 교육 측면에서도 두드러진 발전이 있었습니다. 영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수강생들이 영화 제작의 다양한 측면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영화 제작의 기술과 예술을 깊이 이해하며,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수강생의 예술적 역량을 계발할 수 있었습니다.

‘단편시나리오 워크숍’, ‘스마트폰 초단편영화 제작과정’ 등과 같은 기초 제작 수업의 수요생들이 이후 ‘단편 영화 제작 워크숍’, ‘대구영화학교’ 등 중급 이상의 강의를 연이어 수강하며 신규 영화인력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워크숍’은 높은 수요율과 함께 수료작품들이 각종 영화제와 상영회에서 상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체 미디어 교육

2023년,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소수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체 미디어 교육’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에 참여한 공동체는 교육 종료 후에도 자발적 미디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륵중학교 미디어캠프’에서는 수륵중학교 전교생들이 3일간의 밀도 있는 워크숍을 통해 4편의 영화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냈습니다. 시나리오 작성부터 촬영, 편집에 이르기까지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체험하며, 팀워크와 창의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 자조모임 오리걸음’에서는 뇌병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숏폼 제작과정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익히고, 표현의 다양성을 경험했으며, 무엇보다 창작 과정에서의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는 ‘찾아가는 공동체 미디어 교육’을 통해 각 계층의 특성에 맞는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여 각 개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적극적인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023년,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지역 사회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루어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은 센터를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화이론의 기초개념들

교육명	영화이론의 기초개념들
교육기간	2023년 4월 4일 ~ 5월 2일
교육강사	조민석

〈영화이론의 기초개념들〉은 영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수업으로 총 5차시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영화 이론 개념들을 학습하고,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들을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로맨스의 아이콘 〈카사블랑카〉를 통해 전통적인 영화의 구조를 이해하고, 〈시민 케인〉을 통해서 영화사에 남은 사건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들을 통해 영화의 해체와 유희를 탐구하고 현대 블록버스터가 어떻게 대중과 소통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어 지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지역의 시민분들이 수강할 수 있었고, 수강신청률이 매우 높은 수업이었습니다.

커리큘럼

차시	수업내용 및 활동
1차시	• 고전적 규범의 전형적 사례: 카사블랑카 (1942, 마이클 커티즈)
2차시	• 영화사를 가로지르는 비평적 사건: 시민 케인 (1941, 오손 웰스)
3차시	• 고전영화의 해체와 유희: 싸이코 (1960, 알프레드 히치콕)
4차시	• 형상과 실존의 관계 문제: 패신저 (1975,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트랜짓 (2018, 크리스티안 펫츨드)
5차시	• 동시대 블록버스터 검토: 다크 나이트 (2008, 크리스토퍼 놀란)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워크숍

교육명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워크숍
교육기간	2023년 9월 9일 ~ 11월 4일
교육강사	오세연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워크숍〉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수강생들이 직접 독립다큐멘터리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써 그 가치를 더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실제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으로 활동 중인 강사님께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수강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론 시간이 끝난 후부터는 수업 시간마다 수강생 각자가 기획에 맞게 찍어온 촬영 클립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 동안 찍어온 클립을 함께 보며 각자의 작품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강생들은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공유했고, 그것들을 자신의 작품에 반영하는 방법을 습득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시각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호 피드백 과정은 각자의 작품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을 발견하며 성실하게 작품을 발전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특히 수강생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더불어 뛰어난 결과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총 5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완성되었고 일부 작품은 영화제의 스크린을 밝히며 관객들과 만나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수강생들은 작품에 대한 관객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고, 또 다른 학습의 기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도 이어질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워크숍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커리큘럼

차시	수업내용 및 활동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나의 바깥’을 구성하는 단어 말하기 • 각자 작품계획서 살펴보기 • 다큐멘터리 감상 • Yes 매니페스토, No 매니페스토 선언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큐멘터리는 무엇인가? •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 다큐멘터리 기획안 예시 살펴보기 • 세부기획안 작성하기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계획안 함께 보기 •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서 예시 살펴보기 •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서 쓰기 • 캠코더 사용법 알아보기 • 개별 면담
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본 함께 보기 • 촬영본 스크립트 작성 요령 살펴보기 • 개별면담
5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본 스크립트 피드백 • 편집구성안 예시 살펴보기 • 편집구성안 쓰기 • 개별면담
6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집에 앞서 점검할 것들 • 프리미어 프로 사용법 알아보기 • 편집 • 개별면담
7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 편집본 미니 시사 및 개별 면담 • 최종편집 • 수료작 완성
8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작 시사회

동시녹음워크숍

교육명	동시녹음워크숍
교육기간	2023년 5월 6일 ~ 5월 20일
교육강사	최지영

〈동시녹음워크숍〉은 영상 제작자와 영화 창작자들이 직면하는 사운드 기술의 어려움에 주목하여 만들어진 교육 과정입니다. 이 수업은 사운드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 동시녹음 장비의 사용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이론 학습과 현장감 넘치는 실습으로 촬영 현장에서 필요한 동시녹음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동시녹음 기술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이 워크숍은 지역 내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사운드가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대구에서 사운드 기술자로서의 길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영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워크숍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이 향후 대구 영화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커리큘럼

차시	수업내용 및 활동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의 개념과 진행방식 / 요소 • 영상사운드의 이해 • 극장 사운드 시스템 •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의 이해 • 영상 사운드의 3요소 DME • Stem 작업 방식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녹음의 필요성 • 현장녹음 작업 워크플로우 • 동시녹음 구성원과 역할 • 마이크의 종류 / 특성 • 현장녹음 장비 구성 • 세팅방법 / 포맷 설정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사운드 리스트 작성 • 소스 리스트업 • 현장녹음 실습 • 실습을 통해 녹음된 소리 보관법 / 라이브러리화 하기

픽사의 스토리텔링 방식

교육명	픽사의 스토리텔링 방식
교육기간	2023년 11월 25일
교육강사	조현민

미디어 기획특강 〈픽사의 스토리텔링 방식〉 수업은 단순한 시나리오 작법을 넘어서, 픽사의 작품들이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강좌였습니다. 이 수업은 스토리를 그 핵심까지 추려보며 이야기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스토리의 최소 단위에는 어떤 핵심 요소가 남게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그 핵심이 장편 영화의 스토리 구조 전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탐색했습니다.

기존의 시나리오 작법 강좌들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픽사만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픽사의 마법 같은 이야기를 배워 창작의 영감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커리큘럼

차시	수업내용 및 활동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멘탈〉을 중심으로 〈니모를찾아서〉, 〈업〉, 〈인사이드아웃〉을 비교해가며 픽사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분석한다. 1. 스토리를 최소의 단위로 만들면, 마지막에 남게 되는 핵심은 무엇일까? 2. 최소 단위의 스토리에서 찾아낸 핵심은 장편영화의 스토리 구조에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을까? 3. 시중의 많은 작법서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강사가 직접 픽사의 스토리 구조를 분석하며 찾아낸 비밀. 4. 그 비밀은 픽사의 3장 구조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을까? 영상 클립을 보면서 확인해보기. 5. 픽사의 스토리텔링에서 배운 것을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독립출판워크숍

교육명	독립출판워크숍
교육기간	2023년 10월 4일 ~ 11월 16일
교육강사	김인혜, 최성

〈독립출판워크숍〉은 독립출판의 전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부터 편집, 디자인, 인쇄, 유통에 이르기까지 독립출판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실제로 경험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구의 독립서점 '더폴락'에서 수업을 진행해 독립출판의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총 6편의 독립 서적이 탄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실물 서적으로 구현해 내며, 독립출판의 매력과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커리큘럼

차시	수업내용 및 활동
1차시	1. 오리엔테이션 • 책 제작 과정 전반 • 독립출판물 이해와 유형
2차시	2. 기획 • 책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책의 법칙 / 사진, 이미지, 디자인 • 책의 컨셉 및 간단한 주제 선정 발표 • 기획안 작성해 보기 • 기획 구체화 / 목차, 분량, 종이 선정, 예산내는 방법과 인쇄방식
3차시	3. 콘텐츠 제작 - 글 • 책에 들어갈 글 편집하기 및 교정/교열 • 제목 짓기, 저자 소개글 써보기
4차시	4. 편집디자인 기초 (1) • 인디디자인을 활용한 편집 디자인
5차시	8. 편집디자인 기초 (3) • 나의 콘텐츠를 편집으로 돋보이게 하기 • 타이포그래피와 저작권
6차시	9. 편집디자인 기초 (4) • 인쇄용 파일 만들기과 주의점
7차시	10. 인쇄 및 입고 방법 • 인쇄 시 고려할 점 - 자주 일어나는 인쇄 사고(색감, 제본 등) • 인쇄 발주 넣기 • 서점 입고부터 판매까지 출판 홍보 노하우 • 재고 관리 하기와 정산



시니어 초단편영화 제작과정

교육명 시니어 초단편영화 제작과정

교육기간 2023년 10월 30일 ~ 11월 15일

교육강사 박지하, 장주선

〈시니어 초단편영화 제작과정〉은 5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편 영화 제작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상대적으로 촬영 장비를 다루는 것이 어려운 시니어 분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5분 이내의 초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인형을 좋아하는 중년의 이야기를 담은 수료작 〈나 인형 좋아해〉의 특별한 점은 수강생들이 시나리오 작성에 그치지 않고 직접 스태프로 활동하고, 영화에 출연하여 연기까지 선보인 점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영화의 의미는 그저 감상하기만 하던 타인의 창작물이 아닌 수강생들의 삶을 담아내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시니어 수강생들은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기표현을 시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커리큘럼

차시	수업내용 및 활동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영화와 단편영화의 차이를 이해 • 단편영화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기 • 단편영화 속 시니어 영화의 소재 살펴보기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 • 영화 속 인물을 함께 구성하기 • 영화 이야기 구성을 위한 요소들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촬영을 위한 장비들 살펴보기 • 영화 촬영을 위한 영상 화법 • 영화 콘티 제작하기
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단편영화 촬영하기
5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집 프로그램 캡컷을 활용하여 단편영화 편집 • 편집프로그램 캡컷의 이해
6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고편 영상과 함께 완성한 단편영화를 감상하고 소감을 나누기

주요강좌 토크아보기

수륵중학교 미디어캠프

교육명	수륵중학교 미디어캠프
교육기간	2023년 7월 19일 ~ 7월 21일
교육강사	김대형, 김선빈, 박재현, 박찬우, 조성림, 조윤영

〈수륵중학교 미디어캠프〉는 수륵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영화 제작 캠프입니다. 학교 폭력, 환경 보호, 자살 예방 주제를 중심으로, 3일간 학생들이 직접 단편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밀도 높은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은 영화 제작에 필요한 이론을 학습하는 것부터 실제로 카메라를 다루는 촬영 실습 과정, 편집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편집 과정까지 영화 제작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서 촬영 혼을 불태우기도 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인 촬영을 이어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컷들을 선별하며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다 같이 운동장 앞 벤치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강사, 학생 모두 한 마음으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디어캠프의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들이 교내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수륵중학교의 졸업생들이 후배들의 작품을 보기 위해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와 후배들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함께 만들어진 영화를 감상하면서 우리는 영화에 담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캠프는 영화 제작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예술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커리큘럼

차시	수업내용 및 활동
1차시	• 영화 제작 이론 수업 및 시나리오 작성
2차시	• 영화 촬영
3차시	• 촬영본 편집 및 상영회

주요강좌 토크아보기

고전영화읽기

교육명	고전영화읽기
교육기간	2023년 10월 11일 ~ 11월 15일
교육강사	서성희

올해 신설된 〈고전영화읽기〉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작인 〈하녀〉, 〈오발탄〉을 비롯해 시대와 장르를 대표하는 고전 영화들을 선정하여 함께 감상하고 해설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영화에서 사용된 촬영 기법, 편집, 미술, 음악 등 각종 영화 제작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 영화가 만들어진 시대적 맥락과 영화가 담고 있는 사회적 메시지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수강생들은 각 영화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발표하며, 다양한 시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커리큘럼

차시	수업내용 및 활동
1차시	〈하녀〉 읽기 (감독 김기영, 1960년 작) • 표현주의 영화의 이미지 읽기 • 60년대 근대성 읽기
2차시	〈오발탄〉 읽기 (감독 유현목, 1961년 작) • 리얼리즘 영화의 시각적 특성 읽기 •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 읽기
3차시	〈바보들의 행진〉 읽기 (감독 하길중, 1975년 작) 읽기 • 청년 영화의 시각적 특성 읽기 • 70년대 저항문화 읽기
4차시	〈야행〉 읽기 (감독 김수용, 1977년 작) 읽기 • 플롯과 스타일 읽기 • 70년대 젠더 읽기
5차시	〈짜코〉 읽기 (감독 임권택, 1980년 작) 읽기 • 추리영화의 서사 읽기 • 분단영화에 재현된 역사적 트라우마 읽기
6차시	〈교방동네 사람들〉 읽기 (감독 배창호, 1982년 작) • 각색 시나리오의 서사 변형 읽기 • 80년대 가족 재현과 하층민 서사 읽기



대구영화학교 (Daegu Film School)

대구영화학교(Daegu Film School)는 지역의 영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창작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신규 영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비즈니스 클래스’는 예년과 같이 운영되었으나, ‘현장 영화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현장 영화인들의 다양한 창작 실험과 연구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자 ‘현장 영화인 활동지원 프로그램 - Gap Year Project’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미래 영화인 육성을 위해 ‘청소년과정 - 세상을 담는 아이들’을 ‘대구시민미디어센터 미디어랑’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대구영화학교는 지역의 유일한 영화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총 6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중 약 60%가 영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2명 전원이 무사히 졸업하여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 영화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새로운 활동을 탐구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영화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새 명실상부 지역을 대표하는 영화교육 프로그램이 된 대구영화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영화인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3 대구영화학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개요	내용
신규 전문인력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간: 6월 7일 ~ 12월 24일 참여인원: 12명 참여강사: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수업 50차시 과제실습작 4편 제작 졸업영화 4편 제작
현장 영화인 활동지원 프로그램 'Gap Year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기간: 6월 7일 ~ 11월 30일 참여팀: 5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별 스터디, 원샷원컷 영화, 숏폼, 유튜브 영상 등 제작
청소년과정 '세상을 담는 아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간: 6월 3일 ~ 10월 28일 참여인원: 15명 참여강사: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수업: 15차시 수료작품 2편 제작
비즈니스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 프로덕션 디자인, 영화제 관련 특강

2023 대구영화학교 - 신규 영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 기간: 6월 7일 ~ 12월 24일
- 커리큘럼: 이론 및 멘토링 50차시, 과제실습 및 졸업영화 제작 실습
- 참여인원: 12명(연출전공 4명, 제작전공 4명, 촬영전공 4명)
- 참여강사:
 - 주강사: 영화이론 박인호 평론가, 영화연출 유지영 감독, 영화제작 김세훈 프로듀서, 김화범 프로듀서, 영화촬영 최창환 감독
 - 특강사: 전상진 촬영감독, 박송열 동시녹음 감독, 박두희 프로듀서, 추경엽 촬영감독
- 졸업작품

나쁜 소녀는 Bad Girl

2023 | FICTION | COLOR | 26min



감독·각본·편집 이지연 프로듀서·조감독 권은채 촬영 손성은 조명 박미지 스크립터 김홍신·양지은 동시녹음 장일경 촬영팀 이다빈·조외정 제작팀 박유진·진현정 남유진·최지은·김정욱 데이터매니저 조외정·김동우 출연 이지윤·정유진·김소민

시놉시스

대학교 기숙사 공용 샤워실에서 물건을 훔치는 지수를 목격한 세현이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 모든 것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지수는 세현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수는 비밀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인 룸메이트 재림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조차도 곧 밝혀지고 만다. 지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재림에게 고백하기로 한다.

활동사진



내 공 내놔! Give Me My Ball!

2023 | FICTION | COLOR | 15min



감독·각본·편집 이석현 프로듀서 남유진 촬영 이다빈 조감독·슬레이트 진현정 스크립터 김동우·장일경 동시녹음 김태형 촬영팀 박미지 손성은·조외정 제작팀 이지연·권은채·최지은 데이터매니저 조외정 김홍신 출연 아미르 칸·김동윤·신용환·김건화·서인우·이석현

시놉시스

하교 후, 아파트 잔디밭에서 축구공을 차며 놀고있는 현다, 민우, 유빈. 현다가 찬 공이 주차되어 있는 차 밑으로 굴러 들어간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중학생 형들이 공을 꺼내주지만 공을 갖고 도망쳐버린다. 아이들은 축구공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난다. 세 명은 돌아다니다 축구공 찾는 것을 잊어버린 가운데, 눈 앞에 형들이 보인다. 아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축구공을 되찾는다.

활동사진



모두가 헤어지는 하루 My Day

2023 | FICTION | COLOR | 34min



감독·각본·편집 진현정 프로듀서 최지은 촬영·조명 박미지
조감독·슬레이터 이석현 스크립터 김동우 동시녹음 장일경
촬영팀 이다빈·손성은·조외정 제작팀 이지연·남유진
데이터매니저 조외정 출연 백진연·강동윤·남희진·남혜수

시놉시스

영화감독 지망생 민지는 촬영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시나리오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을 쓰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로 인해 쉽지 않다. 민지는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시나리오를 완성할 실마리를 찾기로 한다.

활동사진



잡으러 가자 Let's Go Get It!

2023 | FICTION | COLOR | 30min



감독·각본 양지은 프로듀서 문가원 촬영 조외정 조감독 박찬우
스크립터 김민성 슬레이터 진하진 동시녹음 장일경
촬영팀 손성은·이다빈·박미지
제작팀 권은채·이지연·백민정·진현정
편집·미술·소품 양지은·박찬우
출연 문창준 서하림·손호석·이미정·김수정·최인영·이승재

시놉시스

대구의 어느 습지대, 라디오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폭우로 인해 대구의 모 팻샵에서 악어 탈출했다는 속보가 연이어 들려온다. 대구 시에서는 대대적으로 악어 포획 포상금 '천만 원'을 내걸며 긴급 포획 작전을 벌이는 그 가운데, 자신이 놓친 악어를 쫓고 있는 '충현'이 있다. '충현'은 6년의 연애, 3년간의 동거를 끝맺음 하기 위해 여자친구인 '소양'이에게 빚진 돈 '천만 원'을 청산해야 한다. 악어를 잡아야만 한다. 좌충우돌 '충현'과 '소양'의 악어 생포기.

활동사진



2023 대구영화학교 – 현장 영화인 활동지원 프로그램 'Gap Year Project'

- 기간: 6월 7일 ~11월 30일
- 참여팀: 5개팀
- 활동내용

팀명	활동내용	활동사진
고라니플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닝타임 3~10분 정도의 원실험컷 영화 제작과 다양한 촬영기법 연구 • 강렬한 연출, 제작과 미술 측면에서도 공이 많이 들어간 웰메이드 작품 제작 	
카메라를 멈추면 안돼! 대구에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비드 보드웰의 <영화 예술>, 프랑수아 트뤼포의 <히치콕과의 대화> 스터디 • 스터디 내용을 기초로 대사없는 이미지 중심의 90초 영화 제작 	
월간대구아마추어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에 한 편씩 10편 이하, 15분 이내의 단편영화 제작 • 대구의 장소, 대구의 배우를 활용한 독립영화 제작 	
알.쓸.잡.독 (알아두면 쓸데있는 잡학 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 간격으로 고전 또는 교양서적을 선정하여 발제 및 토론 •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쁘띠시네마] 아주 작은 영화 트레이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전문가 초청교육, 1~2페이지 분량의 각본 구상, 3분 내외 영상 촬영 실습 • 학습 내용을 기초로 15분 이내의 솜뎀 영화 제작 	

2023 대구영화학교 – 비즈니스 클래스

1강	영화 저작권의 이해 • 일시 : 8월 11일 19:00 • 강사 : 장서희 변호사	
2강	프로덕션 디자인의 이해 • 일시 : 9월 6일 18:00 • 강사 : 강소영 미술감독	
3강	영화로운 세상을 위한 영화제의 프로그래밍과 기획 • 일시 : 12월 14일 19:00 • 강사 : 장병원 프로그래머, 김광철 편집위원	

2023 대구영화학교 – 청소년과정 ‘세상을 담는 아이들’

- 기간: 6월 3일 ~ 10월 28일
- 커리큘럼: 이론 및 단편영화 제작실습
- 참여인원: 15명
- 참여강사: 이경민, 박지하, 박찬우
- 수료작품

컨닝

2023 | FICTION | COLOR | 12min 24sec



감독·각본·편집 장하연 조감독 신민지 촬영 최민서
 슬레이터 정수인 스크립터 이지원 동시녹음 송용준·이재준
 미술 도연승 황시은 김현아 제작 이혁준 출연 안예은·김현아·이지민

시놉시스

지영은 영어시험 기간에 절친 은수의 컨닝 때문에 자신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컨닝 사실을 밝힐지 고민한다.



미역국 레시피

2023 | FICTION | COLOR | 12min 19sec



감독·각본·편집 이지원 조감독 정수인 촬영 김현아
 슬레이터 장하연 스크립터 신민지 동시녹음 이재준·이혁준
 미술 송용진 제작 황시은·도연승 출연 신복후·김복연·도연승

시놉시스

달력 속 빨간 동그라미가 신경쓰이는 만식. 봉아가 집을 나간 뒤 만식은 비밀스러운 작전을 짠다.



배리어프리영화 제작과정

교육명	배리어프리영화 제작과정
교육기간	2023년 8월 17일 ~ 11월 16일 (총 12차시)
교육강사	강내영, 이경민, 박지하

배리어프리영화 제작과정은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확대와 지역영화 유통배급 활성화를 목표로 2019년에 시작되어 5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는 센터의 대표 교육과정 중 하나입니다. 배리어프리영화란 기존 영화에 화면을 설명해 주는 음성해설과, 화자 및 대사, 음악,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자막을 넣어 시·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입니다. 본 과정은 '대구단편영화제'와 연계하여 대구·경북에서 제작된 단편영화를 배리어프리영화로 재제작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업 참여자들이 영화제에서 상영된 지역영화 중 자신이 제작하고 싶은 영화를 직접 선정하고, 배리어프리영화와 장애의 이해, 화면해설 대본 쓰기, 화면해설 녹음, 자막 입히기 등 팀별 제작 실습을 거쳐 총 3편의 배리어프리영화를 완성하였습니다. 완성된 배리어프리영화는 2023 대구 시민미디어 페스티벌에서 상영되었으며, 2024년 제25회 대구단편영화제 배리어프리섹션을 통해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본 과정이 매해 진행되면서, 수료생들이 멘토로 참여하거나 타 사업(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진행한 한글자막 화면해설 상영사업)과 연계하여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작업을 지속해 가는 등 지역의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차시	수업내용 및 활동
1차시	• (특강) 배리어프리영화와 제작과정의 이해
2차시	• (특강)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배리어프리영화
~	• 대구단편영화제 참여 • 제작 작품 감상 및 선정 • 팀구성
3차시	• (특강) 자막해설 및 화면해설 쓰기의 이해
4차시	• 팀별 자막해설 및 화면해설 대본 쓰기 1
5차시	• 팀별 자막해설 및 화면해설 대본 쓰기 2
6차시	• 팀별 자막해설 및 화면해설 대본 쓰기 3
7차시	• 팀별 자막해설 및 화면해설 대본 쓰기 4
휴강	• 화면해설 모니터 및 검수
8차시	• 팀별 자막해설 및 화면해설 대본 쓰기 5
9차시	• 화면해설 녹음
10차시	• 편집 1
11차시	• 편집 2
12차시	• 편집 3
시사회	• 교육수료작 시사회



배리어프리영화 리스트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까지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작된 배리어프리영화를 소개합니다. 2023년은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진행한 '2023 한글자막 화면해설 상영 사업'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영화를 넘어 보다 다양한 지역의 단편영화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하였습니다.

NO	작품명	연출	제작연도	배리어프리 제작연도
1	나만 없는 집	김현정	2017	2019
2	맥북이면 다 되지요	장병기	2017	2019
3	밸브를 잠근다	박지혜	2018	2019
4	찾을 수 없습니다	엄하늘	2018	2019
5	바람이 지나간 자리	권순형	2020	2020
6	엄마는 무엇을 잊었는가	윤진	2020	2020
7	조의봉투	장주선	2020	2020
8	APART	채지희	2020	2021
9	고백할 거야	김선빈	2021	2021
10	소설	현승휘	2021	2021
11	야행성	박지수	2022	2022
12	이립잔치	남가원	2022	2022
13	터	조현서	2021	2022
14	OK목장의 결투	변석호	2022	2023
15	소녀탐정 양수린	김선빈	2022	2023
16	아무 잘못 없는	박찬우	2022	2023
17	고스트롤라바이	이지형	2022	2023
18	양림동 소녀	오재형, 임영희	2022	2023
19	국가유공자	박찬우	2021	2023
20	눈을 감고 크게 숨 쉬어	김은영, 황영	2022	2023
21	수능을 치려면	김선빈	2023	2023
22	점핑 클럽	채지희	2023	2023
23	나의 X언니	조현경	2023	2023
24	이력	이승준	2023	2023
25	지구 종말 VS. 사랑	전수빈	2023	2023
26	달려라 정이	박나나	2022	2023
27	나랑 아니면	박재현	2021	2023

러닝타임(분)	분류	배급사	제작
32	극	감독	
22	극	감독	
25	극	감독	
28	극	센트럴파크	
29	극	필름다빈	
16	극	감독	
22	극	감독	
28	극	감독	
14	극	필름다빈	
30	극	포스트핀	
24	극	호우주의보	
29	극	감독	
28	극	센트럴파크	
16	극	감독	
33	극	필름다빈	
38	극	센트럴파크	
31	극	감독(가치봄영화제)	
30	애니다큐	필름다빈(가치봄영화제)	
33	극	센트럴파크	
39	극	포스트핀	
27	극	호우주의보	
19	극	호우주의보	
24	극	포스트핀	
27	극	-	
32	극	필름다빈	
20	극	필름다빈	
33	극	포스트핀(가치봄영화제)	가치봄영화제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배리어프리영화 제작과정 수료작

대구영상미디어센터
한글자막 화면해설 상영사업



창작지원제도 낙낙



창작지원제도 '낙낙'
바로가기



창작지원제도 '낙낙'
신청 바로가기



창작지원 장비
바로가기

‘낙낙’은 즐거운(樂樂) 창작활동을 위해 누구든 자유롭게 문을 두드리는 (Knock-Knock)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창작지원제도입니다. ‘낙낙’을 통해 지역 창작활동을 위해 촬영 장비를 무상대여하고, 필요시 효율적인 장비 패키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daegu.media-center.or.kr)에 접속하여 상단 [창작지원] - [창작지원제도 ‘낙낙’] 메뉴를 선택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작지원제도 ‘낙낙’ 이용방법

개인, 팀, 단체 어떤 형태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여 스케줄 등을 확인한 후 담당자가 직접 최대 2영업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통보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화, 다큐멘터리, 순수예술, 기타 공공 목적이 인정되는 영상 등이며 광고, 홍보, 뮤직비디오 등의 상업 영상이나 공모전 및 과제 제출용 영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지원가능품목

※ 자세한 장비리스트는 홈페이지 참조

시네마틱 캠코더	Canon C70 Package, Sony PXW-FS7 등
캠코더	Sony AX100, Canon XC10 등
렌즈	ZEISS Compact Prime Lens Set, Canon 16-35LII, Canon 24-70LII, Canon 28-300 L 등
미러리스 & DSLR	Sony A7M3, Sony A7C, Canon 5DM3, Canon 6D 등
레코더	Tascam DR-680, ZOOM H6 등
마이크	Sennheiser MKH60, ME66, Sony UWP-D11 등
모니터	TVLogic LVM 173W 17", LVM-074W 7", Blackmagic video Assist 5" 외장레코더 등
조명	ARRI Daylight HMI 1.2kw, PavoTubell 30X 4kit, Evoke 1200 스팟LED조명 등

1-1. 창작지원 성과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건수	187건	188건	202건
이용횟수	5,482회	7,913회	7,703회

1-2. 창작지원 주요지원작

단편 극영화 모르게



- 감독/각본: 박재현
- 촬영: 전상진
- 프로듀서: 김재은
- 출연: 김민서, 문승배, 소영미, 원향라
- 러닝타임: 38분
- 시놉시스: 중학생 소은이는 아버지의 전화를 엿보게 된다.

단편 극영화 저주 사물



- 감독/각본: 김규태
- 촬영: 이한오
- 프로듀서: 장일경
- 출연: 손승택, 송아경, 이준상
- 러닝타임: 15분
- 시놉시스: 김형사가 사라지고 김형사의 집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오는 박형사. 저주가 든 물건이 있다는 김형사의 말을 떠올리며 노트북을 작동 시킨다. 뜻을 알 수 없는 영상 파일 다섯 개를 작동 시키자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 2023 오오극장 대구독립영화 연말정산 상영

단편 극영화

마이 히어로



- 감독/각본: 문가원
- 촬영: 김홍신
- 프로듀서: 장일경
- 출연: 김하늘, 김예준, 이선재, 이승희
- 러닝타임: 15분
- 시놉시스: 어린시절 화려한 히어로를 꿈꿨던 25살 주영, 편의점에 라이터를 사라 갔다가 술 취한 아저씨와 싸우게 되고 이를 한 아이가 목격하게 된다. 다음날 골목에서 영웅이 되겠다며 뛰어다니는 한 아이를 주영이 마주치게 되고 자신의 어린시절을 회상하며 피식 웃는다. 그러던 어느날 편의점에서 친구 수현과 햄버거를 먹던 주영이 또다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진상을 부리고 있는 술취한 아저씨와 갈등하다가 결국 한아이와 함께 맞서싸우게 되고 두사람은 술취한 아저씨에게 작은 복수를 하게된다. 그리고 돌계단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실험영상

원은 살아있다



- 감독/각본: 이강현
- 촬영: 이강현
- 프로듀서: 이강현
- 러닝타임: 15분 내외
- 시놉시스: 이상의 시(이상한가역반응, 최후)와 산문(단상)을 낭독하며 새로운 시간(고유시간)을 감각한다.

* 문화살롱 5120 전시

단편 극영화

누구나 겨울이 오면



- 감독/각본: 이주원
- 촬영: 전상진
- 프로듀서: 장일경
- 출연: 이달형, 최지현, 김민선, 최인환, 이선재, 윤지민
- 러닝타임: 38분
- 시놉시스: 경호업을 가업으로 삼은 중년 남성 지환, 갱년기를 맞아 호르몬 분비에 의한 정신적 고통과 노화에 따른 물리적 고통을 가족들 몰래 숨기고 있다. 점점 쇠약해지는 몸의 변화로 인해 가족은 물론, 평생 소신껏 지켜온 사업체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영화제작지원작

단편 극영화

사직서 쓰는 법을 몰라



- 감독/각본: 김은성
- 촬영: 이기백
- 프로듀서: 이주호
- 출연: 김노진, 류이재, 신정웅
- 러닝타임: 14분 내외
- 시놉시스: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온 주하는 사직서를 쓰기 시작한다.

단편 극영화

산책하는 날



- 감독/각본: 백민정
- 촬영: 백민정
- 프로듀서: 박유진, 백민정
- 출연: 최경민, 이미정, 김민선
- 러닝타임: 23분
- 시놉시스: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생활을 하던 중 엄마의 연락을 받고 본가로 내려가는 서영. 엄마는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한다며 키우던 개를 일방적으로 떠맡긴다. 생전 처음 개를 돌보며 몇 달을 살아야 하는 상황. 침대에만 누워있던 서영은 개의 배변을 위해 매일 공원에 나가게 된다. 개를 귀찮게만 여기던 서영은 개를 돌보면서 점차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된다.

*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커뮤니티 지원작

단편 극영화

커피



- 감독/각본: 장하연
- 촬영: 최민서
- 출연: 안예은, 김현아, 이지민
- 러닝타임: 12분
- 시놉시스: 지영이는 같은 반 친구 은수가 커피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 대구영화학교 청소년영화제작과정 수료작

* 2023 대구시민미디어페스티벌 상영

대구 다양성영화 지원사업

지역 내 우수 작품 및 창작자 발굴을 위해 운영되는 ‘대구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은 지난해(2022년)부터 대구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을 맡게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총 지원 예산이 1억 2천 5백 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제작뿐만 아니라, 후반작업지원, 장편배급지원 등 지원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안정화 되며 신규 분야의 지원작이 늘어났으며, 제작지원을 거쳐 후반작업 지원까지 받으며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대내외적 성과를 이루어 내는 작품 또한 늘어났습니다. 2023년 대구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 대구 다양성영화 지원사업 주요 성과

구분	작품명	감독	주요성과 활동	비고
제작지원	수연의 선물	최종룡	후반작업 진행 중 (영화제 출품 예정)	
	정화된 밤	안태현	후반작업 진행 중 (영화제 출품 예정)	
	바운더리	정수연	후반작업 진행 중 (영화제 출품 예정)	
	왜행성	이호철	제 25회 전주국제단편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배급지원	나의 피투성이 연인	유지영	총 45개관 전국개봉 / 1만 관객 달성	2021
			서울 언론배급사, 기자간담회, VIP 시사회 진행	대구 다양성영화
			씨네21, EBS뉴스 등 전문지 및 언론사 인터뷰 등 다수 매체보도	지원사업
			제18회 파리 한국영화제 페이사주 (2023)	제작지원작
			제41회 토리노 영화제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 (2023)	
			제2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장편경쟁 (2023)	
			제56회 카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제 프록시마 경쟁 대상(2023)	
제10회 마리끌레르 영화제 초청 (2023)				
제48회 서울독립영화제 초청 (2022)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가상 (2022)				
후반지원	겨울캠프	장주선	제5회 서울여성독립영화제 단편경쟁	2022
			제24회 대구단편영화제 애플시네마 경쟁 / 애플시네마 대상	대구 다양성영화
			제3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단편경쟁	지원사업
			제1회 김해시민영화제 시민기획단편선	제작지원작
	인디그라운드 2023 독립영화 라이브러리 선정			
휴식과 나의 남자친구	태지원		제24회 대구단편영화제 애플시네마 경쟁 대구MBC <열린TV 희망세상> 방영 오오극장 대구독립영화 연말정산 상영	2022 대구 영화학교 수료작

대구 다양성영화 지원사업 지원작 소개

제작지원

수연의 선물

감독 최종룡 | 장편 극영화 | 컬러 | 109분



시놉시스

“세상에 혼자가 된 아이가 새로운 가족에게 편입되려고 한다.” 할머니의 장례식날, 혼자가 된 수연(13)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 절친인 가영과는 가족이 되기로 철석같이 약속했고, 가영 엄마도 자신을 받아준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유골함을 가슴에 안은 수연을 남겨두고 가영 가족은 먼저 떠나버린다. 그날 밤, 가영네로 무작정 찾아간 수연은 믿었던 절친과 엄마에게 차례로 거절 당하고, 보육시설로 보내지게 될 처지에 놓인다. 하지만 그 순간 SNS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완벽한 가족을 발견하게 되고, 이들 가족에게 편입하기로 결심한다. 이 가족, 한유리 부부에게는 이미 입양한 선율(7)이 있었다. 어딘가 멍하고 이상해 보이는 아이. 수연은 선율에게 접근해 환심을 얻고, 선율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정화된 밤

감독 안태현 | 단편 다큐/극영화 | 컬러 | 33분



시놉시스

청송에서 대구로, 또 대구에서 서울로. 아주 길고 불미스러운 꿈에서 당신을 만났다. 애미 되지 못함에 괴로워하고, 자식은 비루한 생애에 애달파한다. 고작 글을 쓴다. 여전히 돈이 없어보는 당신과 내가 이곳 극장서 노상 유난을 떠다. 이것이 나의 망령된 생각임을 안다. 깨있을 때조차도 심지어 돈은 없다. 겨우 영화를 만든다.

바운더리

감독 정수연 | 단편 극영화 | 컬러 | 39분



시놉시스

온라인 교육 콘텐츠 회사의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주인공 지선은 태권도가 취미다. 다양한 직장인 운동이 있지만 태권도를 선택한 이유는 절대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 자신보다 어리지만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보이는 혜주, 매서운 눈빛에 일 처리가 꼼꼼하고 확실한 나은, 뭔가 뻔질 거러보이는 재민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잘하는 영주. 마지막으로 젠틸하고 상냥해보이지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팀장 진영 까지. 어느 날 야근 중 지선은 팀장인 진영이 영주와 다투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지나친 진영의 행동 때문에 퇴사를 결심한 영주는 지선에게 자신이 진영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영주의 부탁으로 마음이 어지러운 가운데 진영은 지선에게 정규직 전환을 제안한다. 지선은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왜행성

감독 이호철 | 단편 극영화 | 컬러 | 38분



시놉시스

우울증에 걸린 엄마에게 형이 사준 신발이라며 선물을 하는 태양. 엄마는 그 신발과 태양의 마음을 방바닥에 내팽개친다. 며칠 뒤 태양은 신발을 환불하려 하지만 이미 흠집이 난 신발은 환불되지 않는다.

장편배급지원

나의 피투성이 연인

감독 유지영 | 장편 극영화 | 컬러 | 155분



시놉시스

주목받는 젊은 작가 재이는 신작 출간을 앞두고 있다. 재이의 동거인이자 애인인 건우는 보습 학원 영어 강사로 일하며 묵묵하게 재이를 보조하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서로를 아끼고 있으며 이대로 행복하다. 하지만 갑자기 예정하지 않았던 아이가 생기면서 두 사람의 삶에 크나큰 변화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재이는 임신과 출간 작업으로 예민해지고 건우는 위험을 감수하며 학원을 차린다.

후반작업지원

겨울캠프

감독 장주선 | 단편 극영화 | 컬러 | 28분



시놉시스

영양사로 갓 부임한 은혜는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딸 주영을 아토피 치유 캠프에 보내고 싶다.

휴식과 나의 남자친구

감독 태지원 | 단편 극영화 | 컬러 | 23분



시놉시스

지빈은 전 남자친구에게 좋아하는 가수의 LP를 선물 받는다. 설렘에 부풀어 그를 찾으러 가고 예전처럼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의 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후반작업시설

2023년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 영화진흥위원회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전문 편집실, D.I(디지털 색보정), DCP(디지털 시네마 패키지), 기술시사 등이 가능한 후반작업시설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영상미디어센터는 창작 공간지원(Pre-Production), 제작지원(Production), 후반작업지원(Post-Production)으로 이어지는 제작 전 단계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후반작업시설은 다수의 장·단편영화를 작업 해온 전문 컬러리스트와 협력하여 운영되어 양질의 작업 결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후반작업시설 소개

색보정실 (시사실) DI & CONFIRM ROOM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색보정실(DI & CONFIRM ROOM)은 색보정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브를 기반으로 BARCO 2k 영상기와 Dolby 5.1 서라운드 채널 시스템을 갖추어, 영화·영상 디지털 색보정(D.I),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DCP) 마스터링, 기술시사까지 가능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편집실

영화·영상 제작을 위한 전문편집실로 영상편집, 색보정(D.I), 그래픽작업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편집실 A는 MAC기반으로 3~4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편집실 내 별도의 회의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집실B, C는 윈도우 기반으로 1~2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실은 대구·경북지역 창작자 및 센터 교육 수강생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반작업시설 운영 및 성과

후반작업시설 운영은 2023년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편영화 제작워크숍,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워크숍, 대구영화학교, 배리어프리영화 제작과정 등 제작교육 수강생들의 편집실 이용이 많았으며, 교육과정 종료 후에도 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편집 작업을 계속 이어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30편 이상의 작품이 색보정(DI) 및 DCP 작업을 지원받았으며, 교육수료작 기술시사, 지역 영화제 상영본 검수를 위한 기술시사 등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시설 운영 첫 해 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작품들도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극영화, 다큐멘터리 등 장르적으로도 다양한 작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후반작업시설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지역영화 제작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색보정(DI)		
장편	1편	9편
단편	8편	
DCP제작		
장편	3편	24편
단편	21편	
기술시사		편집실
26건		114건

※ 2023년 5월~12월(8개월) 운영 현황

후반작업시설 이용안내

대구영상미디어센터 후반작업시설은 대구·경북지역 독립예술영화, 교육수료작에 대한 무상이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지역 작품에 대한 지원 혜택도 마련되어 있어, 창작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후반작업시설 이용을 위한 상세한 내용은 대구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후반작업시설 안내
바로가기

시설명	단위	금액	비고	
후반 작업실	디지털 색보정 (D.I)	1분 (단편, 60분 미만)	33,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경북지역(독립예술)영화 50% 감면 타지역(독립예술)영화 30% 감면
		1분 (장편, 60분 이상)	44,000원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DCP)	1편 (단편, 60분 미만)	330,000원	
		1편 (장편, 60분 이상)	550,000원	
기술시사	1시간	1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경북지역(독립예술)영화 및 센터 교육 수료작 무상이용 	
편집실 A, B, C	1시간	3,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경북지역 창작자 및 센터 교육 수강생 무상이용 	

창작지원

지역영화 창작공간 운영

지난해에 이어 지역영화 창작공간의 문을 활짝 열어 다양한 작품 제작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대구 다양성영화 제작지원작 <왜행성>, <바운더리>, <수연의 선율>부터 한국영상위원회 지역영화 제작지원작 <아이엠러브>,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영화제작지원작 <누구나 겨울이 오면>, 개인 창작작품 <마이 히어로>까지 총 7편의 영화팀이 243일 동안 이용하였습니다. 영화를 준비하는 프리 프로덕션 기간 동안 연출, 촬영, 제작 팀별 회의, 오디션, 대사 리딩, 데스크 헌팅 등 치열하게 영화를 준비하는 시간을 지역영화 창작공간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 아래 사항은 변동 가능성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극영화, 다큐멘터리 등 영화 작품 중 제작이 확정되어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있는 대구지역 작품 (제작이 확정되지 않은 작품은 지원 불가)
지원규모	총 2실 / 3-4인용 1실, 6-7인용 1실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당 1실 공간지원 • 작품당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50일 무상 (단편영화 최대 30일, 장편영화 최대 50일 프리-프로덕션 기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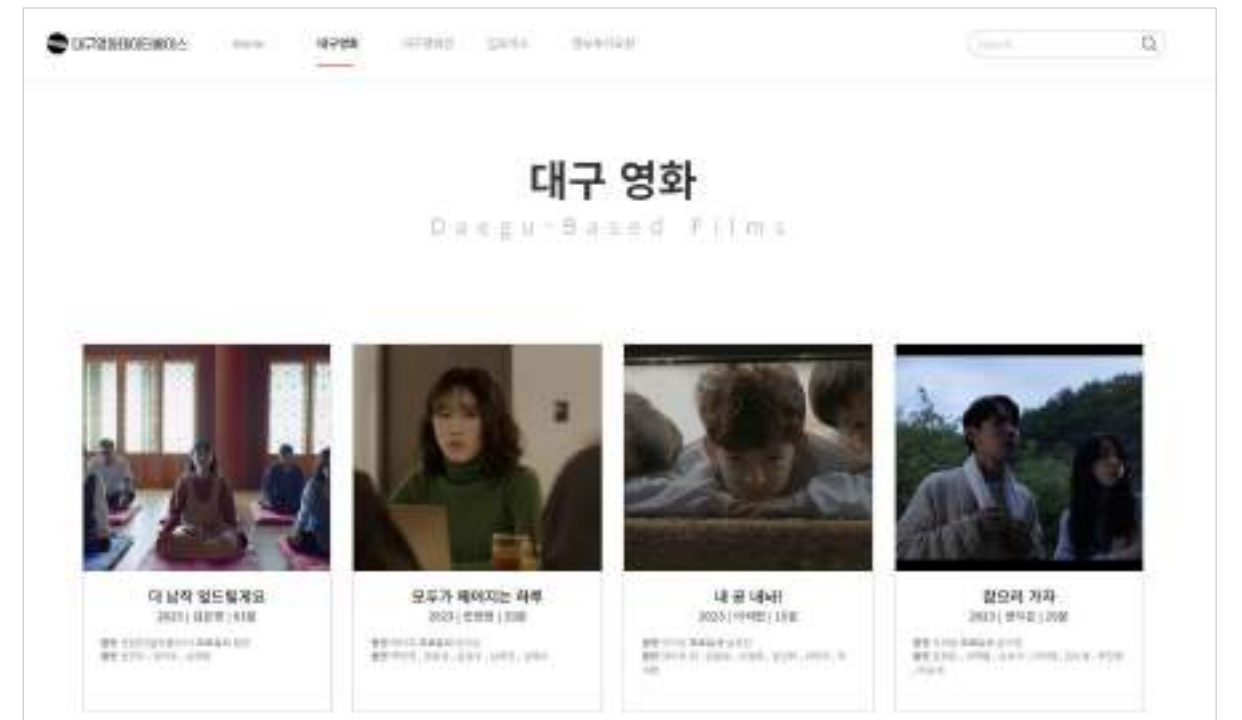
창작지원

대구영화 데이터베이스 DMDB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지역영화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배급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영화데이터베이스(dmdb.or.kr)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 단체, 창작자,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배급사, 평론가, 관객 등 폭넓게 활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에서 제작된 영화와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 뿐만 아니라 지역영화 리뷰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작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구분	대구영화	대구영화인	딤포커스
2022년	330편	925명	8건
2023년	346편	943명	14건



상영지원

2023년 상영지원 사업은 시민(관객) 주도의 영화문화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 시네마’ 사업과 지역영화 유통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커뮤니티시네마 사업은 지역 커뮤니티시네마 그룹들의 상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시네마 활동지원 사업’, 새로운 커뮤니티시네마 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커뮤니티시네마 기획단 과정 2기’,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커뮤니티시네마 활동지원 사업에는 총 19개 팀이 신청하여, 7개 팀이 선정되어 각 커뮤니티별 개성과 의제에 따라 다양한 상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인큐베이팅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커뮤니티시네마 기획단 과정 2기’에는 총 13명의 수강생이 선발되어 교육과 수료상영회 개최는 물론 전국 영화상영자들의 네트워크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대구를 벗어나 보았습니다. 그동안 대구영화가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타 지역 관객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자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예술영화전용관 ‘더숲아트시네마’에서 이틀간 상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커뮤니티시네마 활동지원

- 기간: 2023년 6월 ~ 11월
- 상영회 현황: 27회 상영, 관객 수 580명

커뮤니티명	상영회명	상영회 내용
공존을 꿈꾸는 모두를 위한 영화제 준비위원회	공존을 꿈꾸는 모두를 위한 영화제	〈언니는 고양이〉 등 동물, 환경 관련 영화 상영
경북대학교 신방과 학술위원회	대구 모먼트 시네마	〈눈을 감고 크게 숨 쉬어〉 등 대구영화 및 단편영화 상영
대구스트릿댄스연구회	Spread The Street Message	〈신의 딸은 춤춘다〉 등 댄스 관련 영화 상영
성서공동체FM	라디오 영화관	배리어프리영화 라디오 송출
아무런	아무런 상영회	〈동경이야기〉 등 고전영화 및 실험영화 상영
월간대구아마추어필름	점점 퍼져가 멀리멀리	대구 신진 창작자 영화 상영
청년연대은행 디딤	영화로운 디딤생활 시즌2	2022 대구 영화학교 수료작



커뮤니티시네마 기획단 과정 2기

- 기간: 2023년 9월 5일 ~ 11월 18일
- 참여인원 : 13명
- 커리큘럼

회차	주제	강사명	세부내용
1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김남훈	[커뮤니티시네마의 이해1]: 커뮤니티시네마의 역사와 흐름
2	커뮤니티시네마 활동 사례와 비전	김현수	[커뮤니티시네마의 이해2]: 커뮤니티시네마의 다양한 활동 사례와 비전
3	상영회 기획 및 실무①	김현수	[상영회 기획] 아이디어티, 포지셔닝, 스타일: 상영회를 꾸리기 위한 기본 질문들
4	상영회 기획 및 실무②	김현수	[영화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래퍼런스, 아카이브: 영화를 소중히 다루기 위한 고려들
5	상영회 기획 및 실무③	김현수	[매개 프로그래밍] 장소, 사람, 이야기: 영화를 매개로 장소, 사람, 이야기를 엮는 방법
6	상영회 기획 및 실무④	김현수	[관객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모객, 씨네클럽: 관계맺기와 연결을 위한 생태계적 디자인
7	상영회 기획 및 실무⑤	김현수	[커뮤니티 오피스] 포스터, 티켓, 카탈로그, 굿즈: 필수서식부터 포스터 부착 법까지
8	상영회 기획 및 실무⑥	김현수	[최종점검] 상영회 준비 실무 점검: 최종점검 및 시뮬레이션
9	상영회 기획 및 실무⑦	김현수	[최종점검] 상영회 준비 실무 점검: 최종점검 및 시뮬레이션
10	수료상영회 개최	김현수	수강생이 직접 기획한 상영회 개최

수료상영회

- 일정: 2023년 11월 18일
- 장소: (구)꽃자리다방
- 상영회명: 우리의 모양 영화제
- 상영회 현황: 3회 상영, 관객 수 49명

회차	상영작	부대프로그램
1	[동그라미 섹션 - 우연처럼, 운명처럼] 〈조인성을 좋아하세요〉,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	GV 우연히 마주친 그날, 그 얼굴, 그 목소리
2	[세모 섹션 - 우정일까? 사랑일까?]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 소녀〉	GV 사랑보다 먼 △△보다 가까운 공연 - 무지갯빛 사랑
3	[네모 섹션 - 영화같은, 영원같은] 〈아네스 바르다의 해변〉	GV 나의 발자국을 마주하다

찾아가는 영화관

- 기간: 2023년 12월 28일 ~ 12월 29일
- 장소: 더숲아트시네마
- 상영회명: 대구단편영화 찾아가는 영화관
- 상영회 현황: 2회 상영, 관객 수 6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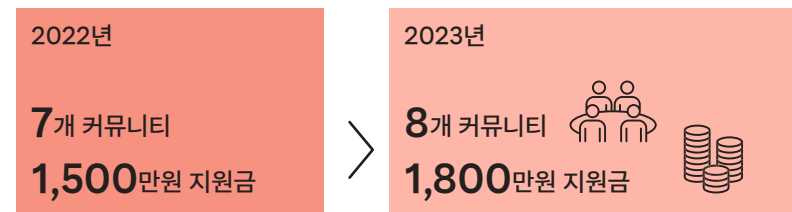
회차	상영작	부대프로그램
1	[순간의 어린이 섹션] 〈오촌〉, 〈점핑클럽〉, 〈거울캠프〉	GV 장현빈 감독, 채지희 감독, 장주선 감독
2	[쌍도걸 유니버스 섹션] 〈수능을 치려면〉, 〈이립잔치〉, 〈아웅다웅〉	GV 김선빈 감독, 남가원 감독, 김본희 감독



미디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

미디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커뮤니티가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슈를 담아낸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민 주도의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시민미디어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마을 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 '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2022년부터 '미디어 커뮤니티' 사업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마다 미디어 커뮤니티 단체 수는 물론 활동 주제, 매개 미디어 등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개 커뮤니티, 1500만원 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2023년에는 총 8개 커뮤니티에 18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미디어 커뮤니티는 기존 '미디어 커뮤니티'사업 선정 경험이 있는 '성장형'과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발굴형'으로 지원을 구분하였습니다. 다년간 미디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성장형 단체들이 확장 및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 지원금 규모를 증액하였으며 신규로 커뮤니티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단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미디어 커뮤니티 공모를 통해 17개 커뮤니티 지원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8개의 커뮤니티가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는 앞으로도 미디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는 커뮤니티들을 지원하며 성장형, 발굴형에 따른 구분 지원을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루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2023 미디어 커뮤니티 지원

구분	커뮤니티명	지원예산(원)	커뮤니티 소개 및 사업내용
성장형	그라운드제로	3,000,000	개미의 꿈_노동의 가치는 무엇일까 • <개미의 꿈_노동의 가치는 무엇일까> 노동 문제 관련 서적 스터디 후 오디오북 서평 콘텐츠 제작
	공간 빈둥빈둥	2,000,000	카메라를 멈추면 안돼! • 참여자들이 거주하는 동네를 배경 동네 사람들이 출연하는 다양한 장르의 10분 미만 웹드라마 제작
	어나더스	3,000,000	어나더스 뮤직(anothers MUSIC) • 지역 씬에서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얼굴 발굴 콘텐츠 • 뮤지션과 공간을 함께 소개하는 콘텐츠 제작
	파괴왕	3,000,000	장벽파괴 음악제 : 장애인 음악 브릿지 프로젝트 • 장애인 연주자 모집 및 교육 • 장벽파괴 음악제 개최 • 포트폴리오 영상 제작 (발달장애인 앙상블 및 개인 포트폴리오영상, 장벽파괴음악 다큐멘터리 1편)
발굴형	렛츠	2,000,000	대학생활의 이해 •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 • 대학생들이 지방에 거주하며 겪은 고민을 풀어나가는 웹드라마 제작
	아늑한 세계	2,000,000	아늑한 세계 • 창작자들의 팟캐스트 방송 업로드 • 구성원의 에세이 및 소설을 뉴스레터 발행 후 독립출판
	오터스 맵	1,500,000	오터스 아웃도어 스페셜 • 북성로 일대 다양한 공구 소리와 일상의 소리를 채집하여 미디어음악에 접목하여 증후 음악 작곡 • 즉흥곡을 바탕으로 거리에서 스트리트 댄서와 협업을 통하여 안무 제작 • 콘텐츠 제작 및 메이킹 필름 제작
	철수와 영희	1,500,000	할매 지금 뭐들어? (세대 통합 노래쇼) • MZ부터 노인세대까지 서로의 노래를 듣고 배워보고 바꾸불러보는 노래통합 송큐멘터리 제작 • 세대공감 공연 및 버스킹 개최



그라운드 제로



공간 빈둥빈둥



어나더스



파괴왕



렛츠



아늑한 세계



오티스 맵



철수와 영희

활동 톺아보기

공간 빈둥빈둥

공간 빈둥빈둥은 2021년 시민미디어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3회째 미디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대구 남구의 한 마을 안에 위치한 소박한 고유 공간인 빈둥빈둥은 동네를 기반으로 누구나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놀면서 더 재미있는 삶을 기획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공간 빈둥빈둥의 목적과 딱 맞는 미디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동네를 거점으로 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실행하게 해주는 큰 자원이 되었는데요. 월간 영화제, 스튜디오 소모임 등을 거쳐 2023년 미디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성장형으로 선정되어 10분 미만 웹드라마 콘텐츠를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 미디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는 기획 단계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어느 해보다 주체성이 두드러지는 수확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출, 각본, 촬영, 녹음, 연기 등 희망하는 역할로 골고루 참여해 보며 참여자 개인적 성취와 만족감도 높았습니다.

2021년, 2022년 두 번의 사업 동안 누적된 노하우와 커뮤니티 역량도 한몫을 했는데요. 특히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되었던 해라고 합니다. 전문가 초빙교육을 통해 구성원 역량 강화의 기회도 마련할 수 있었고 새로운 참여자의 활발한 유입으로 생산적이고 확장성 있는 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도란도란 모여 진행한 영상 시사회에서는 함께 만들어냈다는 뿌듯함과 한발 더 성장한 빈둥빈둥 구성원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동네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과 동네를 오가며 만난 사람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내는 커뮤니티 활동은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이룬 커다란 성과입니다. 영상 곳곳에 남은 동네의 이야기와 구성원들의 상상력으로 공간 빈둥빈둥은 또 새롭게 채워질 것입니다. 매년 더욱 성장하는 커뮤니티 '공간 빈둥빈둥'을 지켜봐주세요!



<저승부동산>

재개발로 오래 방치된 을씨년스러운 동네를 활용하여 청년 세대의 집 구하기 사회 문제를 판타지적 상상력으로 풀어나가며, 약자가 이용당하는 약순환의 주제 의식을 영상으로 표현



<파라노말 4885>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자취방에서 벌어지는 기이하면서 코믹스러운 이야기





대구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문화정책네트워크

참여단체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대구시민미디어센터 미디어랑,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성서공동체FM,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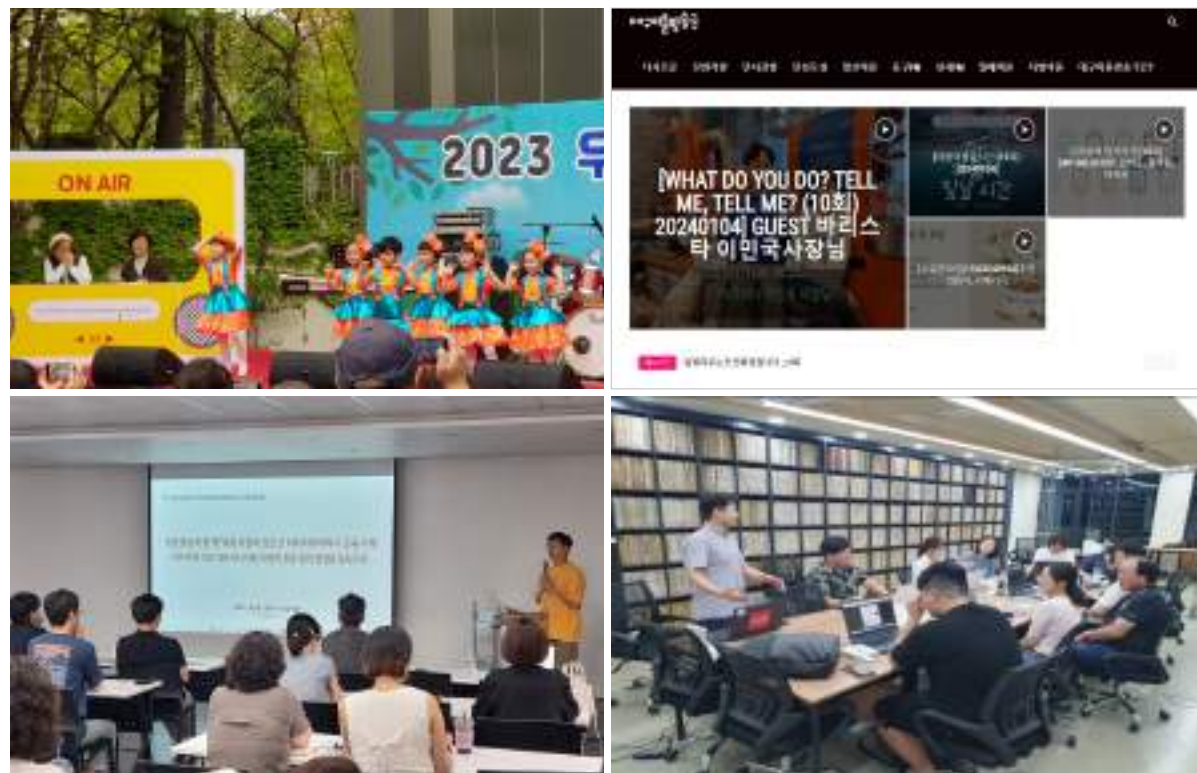
활동내용

SKB미디어창작지원센터 운영

- 지역 미디어단체 실무자 워크숍 지원
- 임팩트 프로젝트 콘텐츠 제작 지원 (영상 4편)
 〈우리동네 무더위쉼터,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봤습니다〉
 〈유휴공간을 아시나요〉
 〈청년의 마을〉
 〈대명6동 무더위쉼터를 둘러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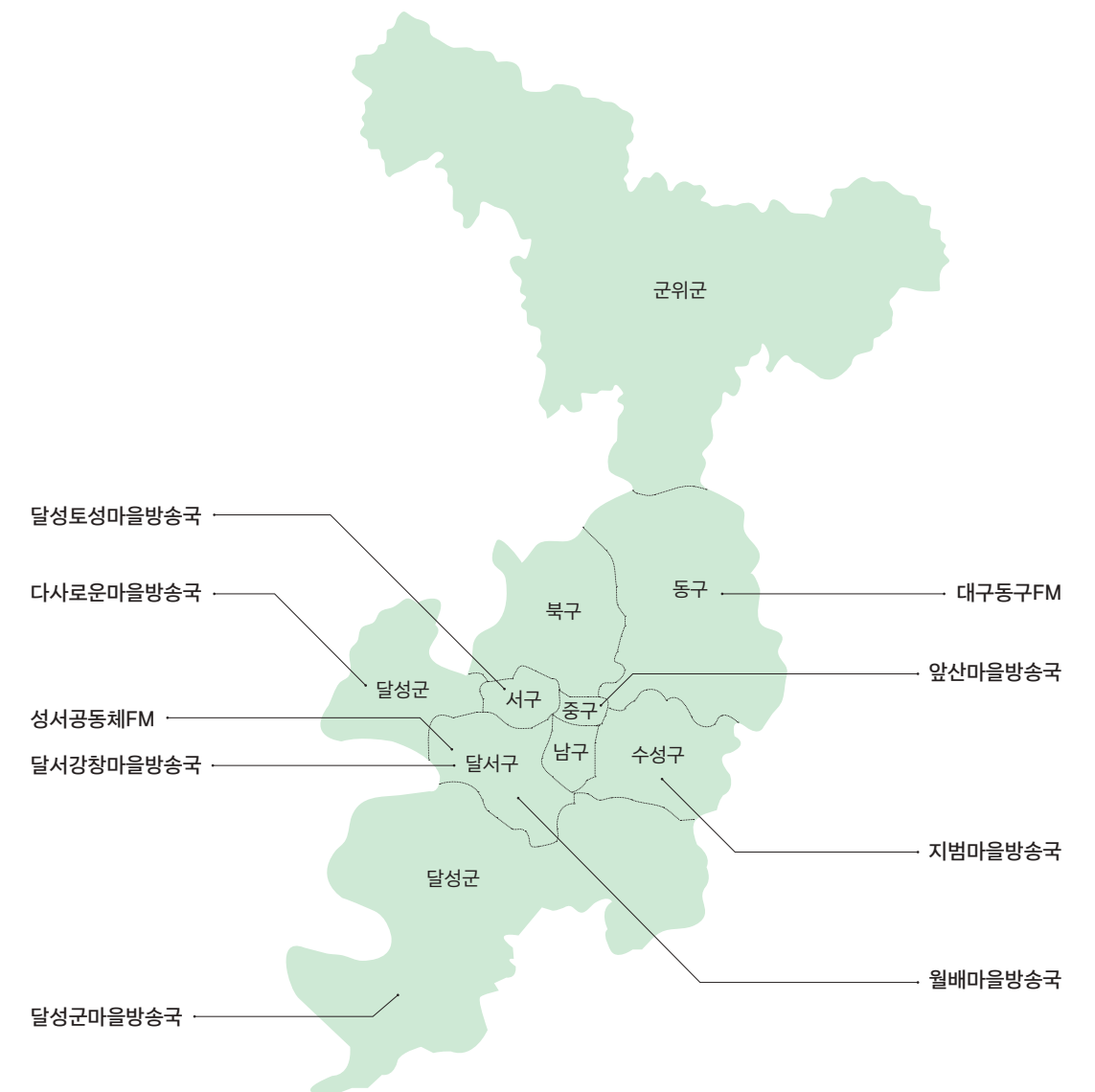
마을미디어 교육 지원

- 마을방송국 합동 워크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다양한 사례〉
- 마을방송국 레벨업 교육



대구마을방송국 운영 지원

방송국명	지원내용
앞산마을방송국	
다사로운마을방송국	• 마을방송국 운영 컨설팅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상시
달성토성마을방송국	• 마을방송국 콘텐츠 공동플랫폼 구축 https://dgmaeul.com/
대구동구FM	• 마을방송국 우수콘텐츠 제작 지원 : 라디오 6편 월간안심 12월호(대구동구FM), 우리들의 티키타카(달서강창마을방송국), 엄마톡(지범마을방송국), 소소한 행복일기(앞산마을방송국), 아빠놀이학교(달성군마을방송국), 달과 별의 스토리(달성토성마을방송국)
달서강창마을방송국	
성서공동체FM	• 마을방송국 오픈라디오 행사 지원
지범마을방송국	• 2023 대구마을방송국 네트워크 파티 개최 지원 (대구시민미디어페스티벌)
달성군마을방송국	
월배마을방송국	



대구 시민미디어 페스티벌

1년 동안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미디어 활동이 이루어질까요? 이러한 미디어 활동들을 모아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한 해 동안 지역에서 이루어진 미디어 활동을 되돌아보고 결산하는 대구시민미디어페스티벌은 2019년을 시작으로 2023년, 4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지역 미디어 커뮤니티 간 교류와 네트워킹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대구시민미디어 페스티벌! 상영 프로그램은 물론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기념 오픈 토크와 특별 강연도 진행되었습니다. 2023 대구시민미디어 페스티벌 개막식에서는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대구지역 영화 및 시민미디어 활성화 정책 제안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되었습니다.

개요

기간	2023년 12월 15일(금) ~ 12월 17일(일)
장소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주최 및 주관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공동주최	대구마을공동체미디어문화정책네트워크 (대구시민미디어센터 미디어랑, 성서공동체FM,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참여인원	240명

전체 프로그램

일시	프로그램
12월 15일(금)	16:00~18:00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기념 Open Talk: 미디어, 시민 참여로 통하다
	19:00~20:30 개막식
12월 16일(토)	13:00~13:50 상영프로그램 섹션 ①
	14:00~14:40 상영프로그램 섹션 ②
	15:00~15:35 상영프로그램 섹션 ③
	16:00~17:30 대구마을방송국 네트워크 파티
	18:00~20:30 온(ON)마을미디어 공모전 상영 및 시상식
12월 17일(일)	11:00~12:00 대구영화학교 청소년과정 ‘세상을 담는 아이들’ 졸업영화제
	13:00~13:50 상영프로그램 섹션 ④
	14:10~15:00 상영프로그램 섹션 ⑤
	15:30~17:00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기념 특별강연 김민섭 작가 특강 :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드는 삶
	17:30~19:00 상영프로그램 섹션 ⑥ * 배리어프리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디지털아트 아카데미 작품 전시회

프로그램 세부 내용

12월 15일 (금)	<p>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기념 Open Talk: 미디어, 시민 참여로 통하다</p> <p>23년 12월 22일,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가 문을 연다. 지역에서는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미디어의 기술적 활용을 넘어 미디어로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미디어교육, 공동체라디오, 마을미디어, 배리어프리, 공익콘텐츠 등을 주제로 사례를 공유하고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대역할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나눈다.</p>
	<p>개막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영상 및 프로그램 소개영상 상영 • 대구지역 영화 및 시민미디어 활성화 정책 제안 공모전 시상식 • 개막작 상영 • <무더위에 안녕들 하십니까?_우리동네 무더위쉼터> 달성토성마을방송국 다큐멘터리 9분 47초 • <꿈> 안종일 다큐멘터리 13분
12월 16일 (토)	<p>상영프로그램: 섹션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벽한 하루> 영화 with 15분 41초 극영화 • <라피스 엑스켈사> 영상동아리 야그를 16분 24초 극영화 • <청소년, 우리의 미래> 영상동아리 야그를 15분 30초 다큐멘터리
	<p>상영프로그램: 섹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미창사 15분 1초 다큐멘터리 • <할머니> 박지희 8분 54초 다큐멘터리 • <우린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김은아 10분 33초 다큐멘터리 • <상인철공소> 최원혜 4분 47초 다큐멘터리
	<p>상영프로그램: 섹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바퀴 여행> 김인택 17분 12초 다큐멘터리 • <장애인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직장인으로> 상상메이커 9분 22초 다큐멘터리 • <Cham Pion (새로운 도전)> 밀알액션 9분 10초 극영화
	<p>대구마을방송국 네트워크 파티</p> <p>많게는 19년차, 짧게는 1년차. 대구에는 9개의 마을방송국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서로에게 주는 선물같은 시간, 네트워크 파티!</p>
	<p>온(ON)마을미디어 공모전 상영 및 시상식</p> <p>“미디어로 전하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나,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다양한 미디어 매체로 기록하고, 상영회를 통해 함께 나누고 자랑하는 마을공동체 기록의 장. 2023년 마을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p>

12월 17일 (일)	<p>대구영화학교 청소년과정 ‘세상을 담는 아이들’ 졸업영화제 11:00~12: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퀸닝> 장하연 (세상을 담는 아이들) 12분 20초 극영화 (GV) • <미역국 레시피> 이지원 (세상을 담는 아이들) 12분 17초 극영화 (GV)
	<p>상영프로그램 : 섹션4 13:00~13: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성구 상동, 청동기인들의 생활터전> 영상동아리 야그를 15분 10초 다큐멘터리 • <누룩의 시간> 지퍼(Zipper) 19분 43초 다큐멘터리 • <벼루장의 길> 현산시조동호회 16분 31초 다큐멘터리
	<p>상영프로그램 : 섹션5 14:10~15: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 구역> 류지윤 12분 극영화 • <갯생> 한승아 10분 45초 다큐멘터리 • <버티는 밤> 이다운 18분 18초 다큐멘터리 • <농구왕> 남가원 8분 51초 다큐멘터리
	<p>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기념 특별강연 김민섭 작가 특강 :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드는 삶</p> <p>작아도 분명한 의미로 존재하며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당신에게 따뜻한 공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p>
	<p>상영프로그램 : 섹션6 *배리어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K목장의 결투> 변석호 16분 45초 극영화 (*배리어프리버전 제작 : 김지나, 권보경, 정윤영) • <소녀탐정 양수린> 김선빈 33분 25초 극영화 (*배리어프리버전 제작 : 양다인, 이경민) • <아무 잘못 없는> 박찬우 39분 극영화 (* 배리어프리버전 제작 : 김경란, 김민서, 조윤영, 박지하)
	<p>수성영상미디어센터 디지털아트 아카데미 작품 전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복도 •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디지털아트 아카데미 작품을 대구시민미디어페스티벌 전체 기간 동안 전시



대구영화학교 홈커밍데이

2023년, 대구영화학교는 5주년이라는 특별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영화를 향한 순수한 열정 하나로 영화를 만들어 온 대구영화학교 졸업생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홈커밍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 홈커밍데이

일정	2023년 12월 26일
장소	다목적홀

프로그램

1. 오프닝 영상 상영

‘그래도 영화는 지속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졸업생들이 기획하고, 촬영, 연출, 연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 숏필름을 감상하였습니다.

2. 축하

1기 졸업생 김재은 학생과 5년간 강사를 맡아오신 최창환 감독님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서 꾸준히 영화를 만들고 있는 두 분께서 전해준 진솔한 이야기 모두 졸업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3. 하찮은 상장 수여식

공식적인 상장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졸업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코너였습니다. 두상, 물음표상 등 재치 있는 이름을 붙여 수여된 상들로 졸업생들에게 작은 웃음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4. 레크레이션

졸업생들과 강사진들이 무작위로 팀을 구성해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영화 장면을 보고 영화 제목 맞추기 게임, 관련된 키워드로 영화 이름 릴레이로 말하기 게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열기와 활기로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한층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클로징 영상 상영

행사의 마무리 시간에는 1기 졸업생인 박찬우 감독님이 제작한 클로징 영상을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그간 만들어진 총 20편의 졸업 영화들의 장면을 편집해 영화학교 졸업생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내용의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홈커밍데이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이야기하고, 안부를 묻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결국 영화는 완성된다’는 슬로건처럼 대구영화학교 졸업생들의 결국에는 완성될 모든 영화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쓰는 시간

단편 시나리오 쓰기 강의는 8주 동안 진행되며, 4주는 시나리오 작법 강의, 나머지 4주는 수강생들의 작품을 피드백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몇 해에 걸쳐 이 강의를 맡게 되면서 해왔던 다짐은 시나리오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자신만의 글쓰기를 할 수 있음을 전달하자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작가를 꿈꾸며 글쓰기를 마음먹었을 때, 가장 높은 장벽은 자기 자신이었다. 재능, 주변의 반응,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스스로를 주저하게 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넘어설 수 있었던 건 결국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들끓었던 이야기였다.

비단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작품을 쓰면서 괴로움도 크지만 결국 그것을 완성했을 때 성장했고 많이 위로도 받았다.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단순히 성공이나 상업적인 논리로만 운용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일찌감치 소멸했을 것이다. 각자만의 속도로, 각자의 귀중한 이야기를 찾는 것은 각자의 삶과 세상을 지탱시키는 힘이 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앞선 4주의 작법 강의에선 시행착오를 통해 나름의 작업 루틴을 만든 것들을 전달하고자 했다. 매 주차 강의를 시작할 땐 단편영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단편영화를 한 편씩 보았다. 가급적 동시대적인 영화를 선정해 수강생들과 함께 보고 영화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았다. 이후 시나리오 아이디어 기획, 3막 구조, 캐릭터 정의, 주제 정의 등 매 주차 시나리오 쓰기의 핵심 테마를 정해 내용을 전달했다. 사실 해당 내용은 몇 해에 걸쳐 완성된 강의 내용으로, 매해 유사하면서 조금씩 변형을 하며 강의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함께 공부하는 수강생들에 맞춰 강의 진도나 내용을 조절하곤 하는데 특히 이번 기수는 수강생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후 4번의 강의는 앞서 언급했듯 수강생들의 작품 제출 및 피드백으로써 강사인 나조차도 부쩍 긴장하게 되는 시간이다. 해마다 수강생들이 어떤 글들을 쓸지 기대됨과 동시에 각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분명한 건 강의를 진행할수록 이 강의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의 내용이 아니라고 느낀다. 이번 기수에선 수강생들이 강의 내 과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줬고 그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의견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 많이 고민했다. 그럼에도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수강생들의 기발한 의견과 핵심을 찌르는 질문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렇수록 강사로서의 나는 더 긴장하게 되지만 즐겁기도 하다. 우리는 함께 글을 쓰듯 서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고받았다.

시나리오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 초심자일수록 조심스러워야 한다. 아직 작가로서의 위치나 입지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의견에 쉽게 휘둘릴 수 있고 그 때문에 글쓰기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배려가 필요하다. 강의를 하면서 어쩌면 가장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다. 좋은 글을 쓰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자신의 글과 더불어 상대의 글을 대하는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강의에선 누구 한 명 빠질 것 없이 자신과 각자의 시나리오에 대해 귀중하게 다루어주었다. 강의에 처음 참여한 목적은 각자가 달랐겠지만, 글을 쓰고 함께 나누는 경험을 통해 모두의 삶에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을 끼쳤기를 바란다.

‘지역’이란 테두리를 넘어서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강의를 듣게 된 건 2022년, 코로나가 아직 창궐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전부터 센터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이용할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한참 먼 전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구 영화계와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혁혁한 활약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놀랍지만 지금까지도 대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저에게 ‘대구’란 ‘영화 잘하는 곳’ 정도로 약간의 환상과 약간의 부러움이 섞인 미지의 도시입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수업은 영화맛집 대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에 보다 많은 온라인 수업들이 개설되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영화 공부를 전문적으로 배웠고, 전주에서 영화 관련 일과 영화 문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람들이 더 배울 게 있느냐는 의문을 종종 가졌습니다. 스스로도 다른 이의 기회를 뺏는 건 아닌지 자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수많은 영화가 있듯이 배움도 끝이 없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강의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팬데믹은 끝났으나 온라인 강의여서 수강하기에 편리했습니다.

조민석 선생님의 수업은 타 기관에서 수업을 듣고 싶었으나 물리적 거리와 비용으로 인해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마련해주셔서 ‘영화이론의 기초 개념들’을 배우며 그동안 영화사, 영화이론에서 평이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내용들을 뒤트는 강의여서 흥미로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배운 영화 공부를 재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늘 큰 깨달음을 얻었던 이승민 선생님의 ‘동시대 다큐멘터리 영화’ 강의는 열리자마자 서둘러 신청했습니다. 이 수업은 종래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아닌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어서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교차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영화를 보고도 이렇게 다른 감상을 가질 수 있다니 매시간 새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창욱 선생님의 비평 수업은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신청하였습니다. 한창욱 선생님과 일면식은 없지만 학교 선배님이어서 뒤따라가는 자로서 영화를 보는 관점을 새로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평론가가 가져야 할 겸손한 태도와 치밀한 시선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전년도와 커리큘럼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다루는 영화들이 달라져서 좋았습니다.

서성희 선생님의 ‘한국 고전영화 읽기’ 수업은 한국 영화를 잘 안 보고 무지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강의였습니다. 한국 고전영화는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당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배워 풍부한 영화 지식을 얻었습니다. 특히 사전에 영화를 보고 와

야 강의를 따라갈 수 있어서 평소에 자발적으로 보지 않았던 영화들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기획특강으로 준비해주신 ‘픽사의 스토리텔링 방식’은 기존 시나리오 작법 수업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사 구조와 함께 인물의 감정 변화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여느 시나리오 강의를 여러 번 듣는 것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바라보는 우주’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SF영화를 분석하여 흥미로웠습니다. SF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가능할까?’라는 물음의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과학적 사실과 영화적 상상력이 결합되는 SF영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2023년 한 해에 제가 들은 수업들을 나열하고 보니 다양한 강좌를 꾸려주신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영화계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어서 교육이든, 행사든 준비하고 시행하는 데에 겪는 여러 우여곡절과 노고에 매우 공감합니다. 센터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훌륭한 강의들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영화를, 그와 관련된 무엇을 한다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이란 단어를 한계나 경계가 아닌 어느 한 거점으로 여긴다면, 좌절과 시련이 닥쳐와도 거점끼리 연결되어 힘을 합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전주가 제가 발붙이고 활동하는 거점이라면 대구는 저에게 배움의 거점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영화인들, 대구시민분들의 거점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적 경험을 집약시킬 수 있었던 공간

영국의 유명한 대배우 마이클 케인은 ‘배우란 상근직 이상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이 ‘전문성을 요하는 상근직’이라는 말에 아주 깊이 공감한 적이 있다.

영화라는 판에서 ‘정규직’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오전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이라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창작자를 찾기 힘들다. 영감(靈感)이라는 것이 오전 9시에 찾아와서 저녁 6시에 퇴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 어떤 작품의 스텝으로 참여할지, 본인의 작품을 찍을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이걸 보고 우리는 멋들어진 이름으로 ‘프리랜서’라고 부르기로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 본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프리랜서라는 이름이 과연 어울리는지 혼자 판단해 볼 수 있다.

때문에 영화를 하기로 한 창작자라면 즉, 앞으로 수입이 있는 프리랜서가 되려면 자신만의 루틴이 필요하다. 어떤 공간에서 몇 시에 어떤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자신의 몸에 맞는 루틴을 찾아야만 계속 영화를 하는 생명력이 생겨난다.

짧더라도 회사 생활을 해본 나에게는 사무실이라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업무를 하기 위해 최적화된 공간. 2023년 다양성 영화제작지원에 선정된 나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었다. 다행히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지역 영화 창작공간 지원 사업을 운영한 덕분에 나는 안전하게 <바운더리>라는 작품을 준비할 수 있었다.

창작공간은 대구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로 교통이 편리하고 3-4인실, 6-7인실 두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 영화 규모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아주 큰 장점은 무상으로 최대 50일까지 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아래층에 계시는데 언제든지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고 프린터 용지만 준비한다면 프린트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연출팀과의 첫 모임 전 나는 내가 대여한 3-4인실 사무실에 먼저 방문을 하여 책상 배치를 바꾸고 바닥을 쓸고 물걸레질을 했다. 또한 약소한 페이로 나와 함께 일해주기로 한 스텝들이 일을 하는 동안 기운이 나도록 간식을 사다 놓았고 앞으로의 일정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무실 벽에 일정을 적어놓았다. 이렇게 <바운더리> 프리 프로덕션을 시작하였다.

프리 프로덕션에 들어가기 전 나와 우리 연출팀은 아주 조금씩을 차근차근 일을 해나가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손 놓고 있다가 휘몰아치는 일에 혼이 쑥 빠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후 1시에 출근하여 되도록 7시 퇴근을 목표로 그날의 업무를 해나갔다. 각자의 자리에 앉아 로케이션 담당자에게 전화를 돌리고 배우들을 섭외하고 미술 소품을

구매, 제작하였다. 짧게 일한다고 해서 열정이 ‘적당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체력과 멘탈 관리가 안전한 영화 현장의 필수 조건이다.

나의 결정이 명확하면 할수록 일의 진행이 빨라지는 만큼 나는 오전에 출근하여 미리 그날 처리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오후 1시에 연출팀이 오면 그날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오후 7시쯤 그들이 퇴근을 하고 혼자가 되면 다시 시나리오를 고쳐 쓰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변경사항들을 다시 스텝들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흘러갔다.

깊은 산속 웅달샘에 물을 먹으러 오듯 대구에서 같이 작업을 했던 영화 동료들이 가끔씩 사무실에 방문하여 응원을 해주거나 <바운더리> 시나리오 피드백을 주기도 했다. 또 자신들의 작업을 들고 와 내 옆에 앉아 일을 하기도 했다. 다들 본인들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 주가 지나면 벽에 적어 놓은 목표들을 지우고 해결하지 못한 일과 이번 주의 중요 일들을 함께 다시 적었다. 그렇게 네 번.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니 프로덕션이 며칠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출팀도 오후 1시보다는 필요한 만큼 일찍 출근하여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주었다. 촬영 전날 그간 정리해둔 소품을 촬영 장소로 옮기고 다음 창작자를 위해 사무실을 원래 상태로 원상 복귀를 하였다. 다시 한번 바닥을 쓸고 물걸레질을 하였다.

혹시 놔두고 가는 것이 없나 텅 빈 사무실을 한번 쪽 둘러보았다. 짧지만 강렬했던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떠올렸다. 창작공간이 있었기에 어떤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출근하여 내가 그간 쌓아온 영화적 경험을 집약시킬 수 있었다. 일을 하는 루틴이 내 몸에 자리 잡았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일을 할지 정리가 되어있었다.

전장에 나가기 위해선 무기가 필요한 법

도무지 영화를 만들 길을 몰라서 막막했던 때가 있었다. 당시엔 혼자 방 안에서 한 장짜리 에세이를 끄적이며 이게 어떻게 다큐멘터리 영화가 될 수 있을런지, 고작 나의 일기장 같은 부끄러운 이야기는 아닐지 고민했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해소되지 못한 고민과 질문은 언제든 그 형태를 달리하여 문득 어느 순간에 균열을 일으킨다. 그럴 때는 창작이라는 행위가 그 방점이 되기도 했다. 그 막막한 현실에 좌절과 염세적인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자 했을 때, 가끔은 길이 열리는 듯한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오래 전부터 구상해오던 작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 막막함이 밀려왔다. 여러 감독님들의 현장을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장비가 없다는 게 내게 가장 큰 숙제였다. 그리고 감독님들은 비싸고 좋은 장비를 구비해서 작업과 생계일을 병행하셨고, 그게 생산수단이자 작업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여건이 없어서 나에겐 먼 이야기로만 느껴졌었다. 다큐멘터리는 극영화와 달리, 현실의 시간을 쌓아가는 일이라 장비를 오랫동안 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전에 단편 작업을 했을 땐, 거의 반 년간 작은 캠코더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내 눈이 카메라가 되어 원하는 이미지가 보일 때마다 채집했었다.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지만, 나는 아직 장인이 아니기에 좋은 장비가 나에겐 절실했고, 내 작업과 가장 잘 맞는 바디와 렌즈, 마이크는 어떤 것일지 몇 달을 고민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애플시네마 피칭을 준비하다가 미디어센터에서 장비를 대여해주는 '창작지원제도 낙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센터에서 삼각대, 마이크 등 기타 장비를 빌려 트레일러 영상을 만들었고,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 이후로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대여하면서 조금씩 푸티지를 쌓아나갔다. 만일 장비를 지원받지 못했더라면 아직도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작업을 위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센터에서 다양한 장비를 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작업에 실질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어떤 순간은 캠코더로 현장감있게 담아야 하고, 어떤 때는 아름답게 시네마 카메라로 담아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에 적재적소에 카메라를 빌릴 수 있어서 장비지원 자체가 실제로 내 영화의 그림들을 결정한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끔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구를 떠났다가 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구로 돌아온 나의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했다. 영화를 만들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 공부라도 더 해보자 하는 마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했었다. 학교에서 장비들을 많이

빌릴 수 있었지만, 대구로 오랫동안 가져오는 것은 힘들어보였고, 졸업을 하게 되어 그마저도 불가능했다. 대부분의 영상과 학생들이 장비를 빌리기 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학적을 유지하면서까지 장비를 빌리는 게 현실이었다. 그만큼 장비 대여는 영화를 찍을 때에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끔 서울이나 타지역에서 작업을 하시는 감독님들과 대화를 하면 대구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꽤 매력적인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좋은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멋진 작업을 하시는 감독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의 창작물이 완성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과 그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완성된 영화의 엔딩크레딧의 길이만큼 더 아름답고 빛나보인다. 영화는 혼자 방 안에서 상상만으로 탄생하지 않음을, 무수히 지나쳐 온 암흑의 터널에서 가끔씩 만나는 따뜻한 손길들을 느끼며 묵묵히 갈 때 완성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려 한다.

물음표와 답, 그리고 시작하는 영화인

영화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묻는 공통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슨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영화를 하고 싶으세요?”. 보통 이렇게 운을 떼며 새로운 영화인들을 맞이합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 답을 준비할 수도 있고 어쩌면 즉흥적일 수도 있겠죠. 약간 웃기지만 저는 준비하는 편입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에서 막혔습니다. “어떻게 영화를 찍을 건가요?”. 현실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그냥 찍는 거지.”라는 답변은 크게 도움이 안 되더군요. 마음에 드는 답을 찾으려 우선 자신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영상업계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대학교 때 여러 영상을 만들어보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은 제가 영상 관련 일을 하면서 가장 원한 것이 ‘수요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영상’을 만들기였다는 겁니다. 제가 찍고 싶은 것을, 제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영상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취미라 여겼던 영화에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입영통지서와 함께 대구로 오게 되면서 사회복지를 하는 동안 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SNS에 올라온 수강생 모집 광고가 보였습니다. 늘 선택 전 고민과 걱정, 우려로 가득 찬 저였지만 마음먹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렇게 저의 첫 영화제작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초단편영화 제작과정〉. 굉장히 만만하고도 흥미로운 제목에 수강신청을 서둘렀습니다. 영화를 찍을 생각에 모인 다양한 나이의 분들과 멋쩍은 자기소개를 나누고 박찬우 감독님, 박재현 감독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같이 듣는 분들은 영화와 무관한 분들도 계셨지만, 영상이나 콘텐츠 제작 관련 종사자, 영상학과 대학생, 연극배우 등 가지각색이었습니다. 함께 영화가 무엇인지부터 시나리오 피드백,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 등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들을 배워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직접 연출을 할 기회를 얻어 사회복지를 하며 시나리오 수정 및 프리 프로덕션에 들어갔습니다. 로케이션과 스토리보드, 일할표 등 영화를 하면서 대부분 거치게 되는 과정을 같은 조원들과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촬영감독과 더 좋은 구도와 컷을 고민하고 일할표와 소품, 그 외 촬영 외적인 요소 등을 고려함에 있어 조원들 없이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제 손을 거쳐야 안심하는 성격이라 믿지 못한 채 혼자 해내려던 저였지만 이번 수업에서 영화는 혼자서는 힘들다는 말이 조금 더 이해가 갔습니다. 제 첫 연출작 〈투명도 100%〉를 찍으며 완성도와 별개로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연출이 고려해야 할 요소를 포함해 현장을 이끌어가는 책임감까지도 말입니다. 제 작품에 아쉬움이 안 남는다면 오히려 그만큼 애정이 없었던 거겠죠.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투명도 100%〉를 보다 발전시켜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남긴 채 인생 첫 시사회를 마쳤습니다.

초단편영화 제작과정이 끝난 직후 돌아온 일상에서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영화를 할 건지에 대해 초단편영화 제작과정은 제게 충분한 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다른 수업을 듣고 싶어졌습니다. 사회복지와 겸할 수 없었던 영화학교를 뒤로 한 채 다른 수업인 〈촬영 조명 워크숍〉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초단편영화에서는 따로 촬영장비를 배워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촬영 조명 워크숍〉은 이론 포함, 촬영 등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실습할 수 있었으며 영화의 한 장면을 따라 찍어보거나 직접 조명을 이용해 연출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수업을 진행하셨던 노다해 감독님은 촬영에서 유의할 점, 여러 가지 팁과 현장 경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론 이상으로 장비를 다루는 기술적인 부분과 촬영감독이 갖춰야 할 마인드까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직접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는 과제가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모두가 서로의 배우가 되어 원하던 장면을 비슷하게 찍으려 노력했습니다. 조명을 활용하여 어두운 뒷배경에 중심인물을 강조하다가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또다른 인물을 보여주는 장면, 정말 써보고 싶던 달리를 사용하여 연출한 〈기생충〉의 한 장면 등 각자의 영화 취향 역시 엿볼 수 있어 흥미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조는 빛을 활용할 수 있는 장면을 고민하다 “한 어두운 방 안 히키코모리 아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전달하는 어머니”라는 상황을 구성하여 촬영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완벽히 되진 않았어도 “찍고 싶은 것을 찍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제게 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매 주 한 번, 체감상 짧은 교육시간의 끝이 보일 때 즈음, 저는 세 번째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작에 본격적으로 흥미를 느끼고 어쩌다 생겨버린 자신감과 함께 세 번째 수업인 〈단편영화제작워크숍〉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현석 감독님, 다시 만난 박재현 감독님과 함께 짧지만 여러 번의 촬영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연출에 대한 욕망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촬영 조명 워크숍〉 이후 촬영 역시 도전하고 싶어 촬영감독에 자원했습니다. 실습 때 카메라를 직접 만지며 연출의 의도가 가장 잘 담길 수 있게 소통하고 연습하니 촬영에 대해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제 시나리오가 선정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역할이 생기게 된 거죠. 촬영감독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최종 선정된 두 작품의 촬영감독에 도전했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표현하자면 마치 부담은 불같이 타오르고 설렘은 식은 땀처럼 흘러내렸다고 해야 할까요? 프리 프로덕션 때 로케이션을 미리 답사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본 촬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컷 이전에 무사한 컷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재개발구역〉이란 작품의 로케이션은 오르막길이라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땀이 쏟아지던 것이 생각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배우가 도로를 달려나가는 장

지역영화 유니버스를 위한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면인데 촬영이 딜레이되어 낮에 찍지 못해 다음날 본 촬영 이후 추가촬영을 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라 OK 사인을 받고 허둥지둥 단체 사진을 찍고 헤어졌던 웃픈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편영화제작워크숍>은 지금의 제가 경험할 현실적인 영화제작현장을 보여주면서 촬영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 값진 수업이었습니다.

세 개의 수업으로 2023년이 꼬박 채워졌습니다. 수업마다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 수강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배우고 싶은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촬영 조명 워크숍>의 인연으로 연기를 하게 되고, 5기 영화학교 단편영화 제작에도 스크립터에도 도전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찍고 도와준 모두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해 동안 영화를 찍는 데 필요한 기술, 정보, 마음가짐 등을 체득하며 답을 찾으려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라는 것이 꼭 답을 주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답 대신 물음표를 이어갈 용기를 얻었던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영화를 찍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겨내고 나니 이제는 “영화 계속 만들 거야?”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글썄요, 아직 물음표랄까요?

2023년 11월에 개봉한 <나의 피투성이 연인>은 작년 다양성영화 장편배급지원작인 동시에 2022년 제작지원작이기도 했다. 이 영화가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것은 제작비의 100%가 지역영화 활성화를 위한 제작지원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나의 피투성이 연인>은 처음 라는 제목으로 2019년 전주시네마펀드 프로젝트(JCP)에 선정되어 기획개발비를 받으며 시작되었다. 이듬해 2020년 서울영상위원회 서울배경 독립영화제작지원, 2021년 인천영상위원회 지역영화 활성화 지원-지역장편영화 제작지원, 한국영상위원회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그리고 대구 다양성영화 제작지원을 받아 총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후 제작된 영화는 2022년 부산국제영화제-아시아 영화펀드(ACF), 2023년 대구 다양성영화 배급지원을 받아 완성되었고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란 제목으로 바꾸어 개봉했다. 이처럼 <나의 피투성이 연인>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주,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각 지역에서 지역영화 제작을 위해 마련한 지원사업이 있었기에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영화였다. 반드시 수입을 염두에 둔 상업 투자의 구조에서 벗어나 제작지원을 받은 감독은 자신의 창작 세계를 지켜가며 어떠한 검열 없이 소재적, 미학적 표현을 발휘할 수 있기에 이는 곧 다양성 영화의 창출과 직결된 통로이기도 하다.

상업영화의 반대편에서 있는 독립영화의 가장 큰 정체성이 ‘다양성’이라 했을 때 지역영화는 다양성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역영화인으로 살아오며 체감한 바로는 지역영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환경이 분명히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이 늘고 지원자도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렇게 활발하게 지역영화가 만들어지며 다양성 영화들의 양과 질의 스펙트럼이 늘어난다. 이런 성과들은 또다시 더 많은 지역들을 영화제작을 위한 지원사업에 뛰어들게 할 것이고 이런 순환은 영화라는 예술로 서울과 비서울이라는 무디고 거친 구획을 지워버리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개인과 개인이 발 딛고 선 삶의 공간을 넘나들며 그야말로 영화의 다양성을 지켜나가게 할 것이다.

‘서울에 가지 않고는 영화를 할 수 없다’는 전제는 이미 흐려진 지 오래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 영화인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곳을 거점으로 우뚝 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자극을 받으며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채로운 영화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지역의 영화들을 함께 상영하고 지역영화인들 간의 교류를 위한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 영화제에 초청받는 영화들 외에도 적극적인 소개가 없이는 볼 수 없는 우리 지역의, 타지역의 지역영화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쉬운 제작지원금 부분은 주관기관이 해를 거듭하며 쌓은 경험과 창작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충분히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를 이해하다

대학교 졸업반. 영상업계 취업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했던 우리는 대학 생활 중 해온 활동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재밌고도 슬픈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OO기업 우수서포터즈 김세모. OO 영상공모전 최우수상 이네모.

우리의 이름은 늘 누군가가 만들어낸 단체명 뒤편에 머물러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이름은 뒤로 한 채, 누군가가 준 ‘우수함’ 칭호를 얻으려 부단히 노력했던 과거를 읽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영상이 뭐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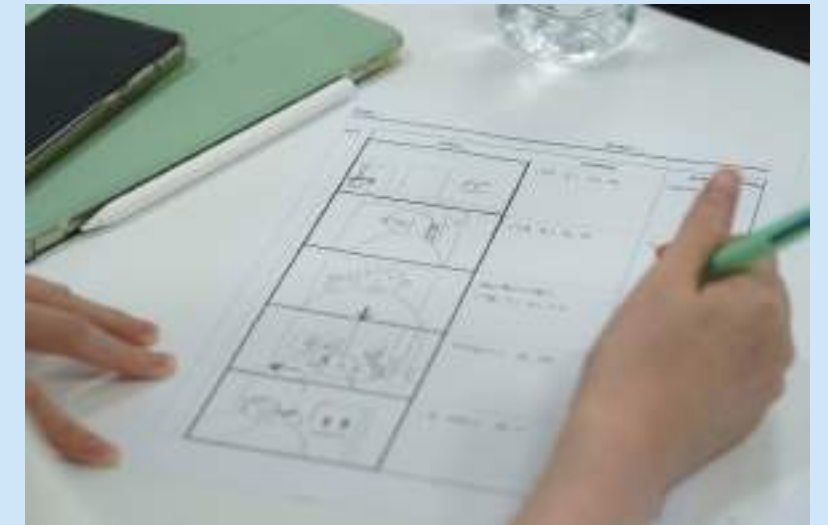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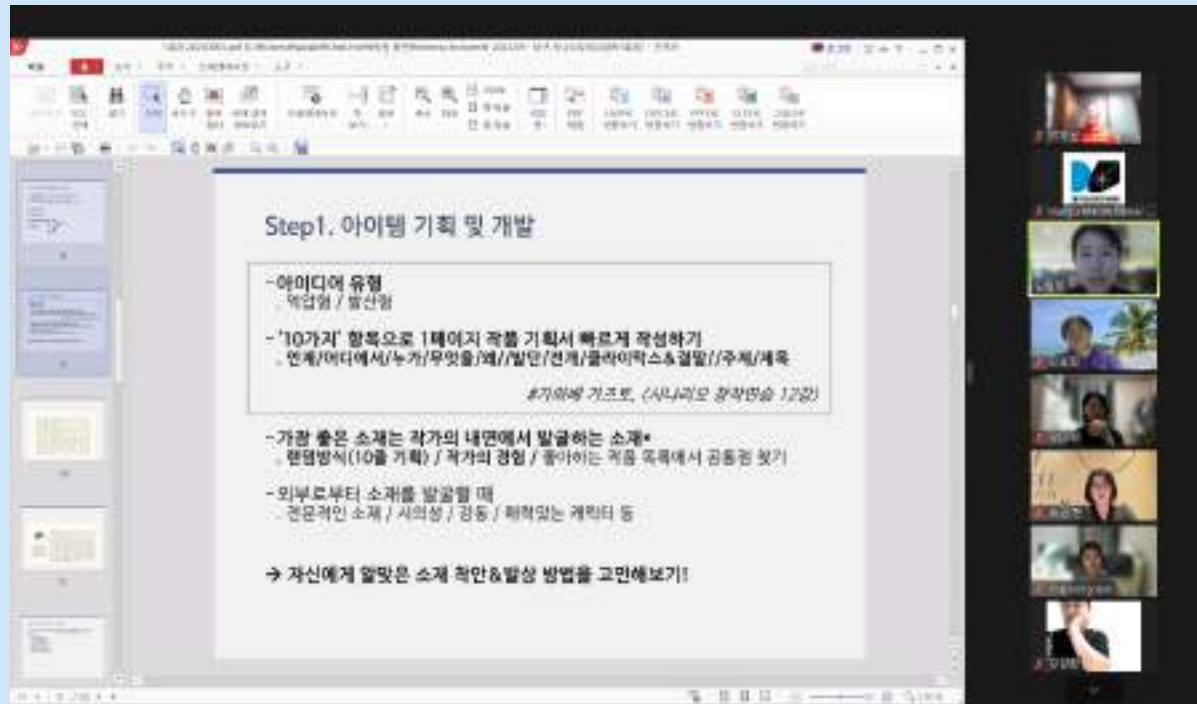
우린 모두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을 만나면서도 이야기는 화수분처럼 끊이질 않았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간 언니는 사수에게 모진 말을 들었다며 털어놓기도 했고,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못 참아 스스로 팀장이라는 재앙 속으로 들어갔다며 후회 섞인 하소연을 했습니다. 망한 조별과제, 친구의 친구 이야기까지, 끊이지 않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에피소드를 쌓아 올렸습니다. 회의 공간을 메운 이야기들은 고스란히 <대학생활의 이해>라는 ‘우리의’ 웹드라마에 녹아들었습니다.

시나리오 작업에서 캐릭터를 설정하고 서사를 구축하는 과정은 ‘입체적인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라며 시나리오 작업이 순탄하리라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참으로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입체적인 인간’이라고 말하기 부끄럽게도 저는 제 자신을 너무도 단순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나리오 속에는 안일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안일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깊이를 가졌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 감독님께서 조언해주신대로 우리는 캐릭터의 모든 설정을 하염없이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써내려간 몇 장의 종이들을 읽다, 비로소 내가 몰랐던 깊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웹드라마를 만드는 여정의 초입은 내 안의 나를 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대학생활의 이해>라는 웹드라마를 완성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웹드라마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작품을 응원한다며 따스한 말을 전해준 분들. 첫 연기지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조언으로 선뜻 나와준 친구들. 부족한 작품이지만 우리의 작품을 믿어주고 멋진 연기를 펼쳐준 주연 배우님과 먼 거리를 달려와 준 사수 배우님께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에게 친절히 장비 운용에 대해 알려주신 고현석 감독님, 이야기 구성에 대해 따뜻하고도 따끔하게 조언해주신 감정원 감독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영상을 만들겠다는 대학생들의 객기 어린 지원서를 받고 받아주신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는 더더욱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친절함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소망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Be kind’의 가치를 다시금 새겨 봅니다. <대학생활의 이해>를 시작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길 바라며, 저희는 곧 다시 모이려 합니다.







미디어 커뮤니티



창작지원 낙낙





대구 다양성영화 지원사업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애뉴얼리포트 2023

발행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발행일 2023년 12월
기획·편집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주소 (42250)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40 대구스타디움몰 1층
전화번호 053-792-7008(운영팀)
053-792-7009(창작지원팀, 미디어교육팀)

웹사이트 daegu.media-center.or.kr
이메일 mediacenter.daegu@gmail.com
인스타그램 @daegu_media



대구영상미디어센터
DAEGU MEDIA CENTER